



www.maggun.com

2017.09 vol. 78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for Higher Education

· **곽병선** 군산대학교 교수

- 비밀의화원 **김앵주** 대표 · 달그락달그락 잡지 [네버 엔딩 스토리] · 송선목공방 **이송선** 대표
· 군산대학교 **나의균** 총장 · 독립유공자 **이태로** 선생 · 군산의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 한국우쿠렐레 교육협회 군산지부 **김인선** 지부장 · 국립수산물학원 갯벌연구센터

앞선 생각으로 진보된 비즈니스를!

군산의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은 이미 아이씨엠과 함께 있습니다



C.I. (기업 아이덴티티) /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 Package (포장디자인)
Editorial (편집디자인) / Products (제품디자인) / Photograph (사진)

Add.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Tel. 063-445-1856 Fax. 063-911-1856



Now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같이 나눈 70년,
가치 더할 100년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교육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산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교 중 전국유일 PRIME 사업 선정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전국유일 4개 분야 최우수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5년 연속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	--	---

최근 송강호 주연의 영화 ‘택시운전사’가 화제다. 전두환 군부가 민주화를 외치는 광주시민들을 공수부대를 투입,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실상을 담은 이 영화는 독일인 카메라기자 힌츠페터의 목숨을 건 잠입 취재로 국내외에 알려지게 된다. 당시 광주는 진출입할 수 있는 모든 도로가 철저히 차단되고 신문, 방송은 물론 전화, 팩스마저 통제되어 그야말로 고립된 무법천지였다. 그러다보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은 타 시, 도는 물론 인접 시, 군에서조차 모를 정도였고 군부가 기획한 유연비어만 난무했다. 그러나 힌츠페터는 어느 택시운전기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광주에 잠입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군대가 제 나라 국민을 짓이기고 죽이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필름에 담는 데 성공한다. 86년도, 서울에 들어온 힌츠페터는 광화문 시위를 취재하던 중 경찰에게 맞아 목과 척추를 크게 다치기도 했는데 2003년 민주화 정부에서 제2회 송건호 언론상을 받았으며 작년 1월 79세를 일기로 운명했다. 그는 세상을 떴지만 모두가 그를 참 기자, 참 언론이라 칭한다.

그와 너무도 대별되는 국내 방송국이 있다. KBS, MBC 양대 공영방송이다. 두 방송사 모두 사장퇴진과 공정방송을 외치며 직원 거의가 제작중단에 돌입함으로써 방송 파행을 맞고 있다는 보도다. 두 방송사가 그동안 보여준 후진적 방송 행태에서 사실 이러한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고 때늦은 감도 있다. 언론은 정치는 물론 사회 전반을 감시하고 정확하면서도 균형 있는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계도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에이어 제4부라 일컬어질 만큼 막중한 분야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공정방송을 주장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좌천됐고 오로지 이명박근혜 사유물인양 도를 넘은 편향 보도로 공정성을 잃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음으로써 지금의 사태를 맞았다 할 것이다. 힌츠페터처럼 기자의 본분으로 목숨을 건 취재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명색이 언론이라 한다면 공정보도라는 최소한의 기본 자질은 갖춰야 되지 않나 한다. 그렇다면 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위나 맞추는 방송을 하라는 건 아니며 그 역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건 상전의 눈치나 보면서 입맛에 따라 감추고 덮고 속이는 언론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를 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참 방송 언론사가 적어도 한 두 군데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글|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jay0810@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jay0810@hanmail.net Fax_ 063) 911-1856

협찬업체

베니키아 아리울 호텔 063-464-2005~7_ 숙박권
오죽 063-464-5625_ 식사권
하이트진로 063-453-5111_ 맥주
미즈커피 063-446-2867_ 음료권
바나나팩토리 070-4274-8839_음료권

* 군산 하이트 진로에서 제공하는 맥주를 받고 싶은 구독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미성년자 불가)하시고, 매거진군산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직접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고현미	조돌남	유창록	박주옥	안형일
신보애	김수현	전창훈	이승은	최미림
손희진	김성국	황창규	김진아	박동영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배포처

매거진군산은 매달 초 1~3일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원도심_신포우리만두 063-445-0389
골드북권방 063-445-1212
던킨도너츠 063-443-7887
미다원 063-462-2132
우리문고 063-445-0031

나운동_비달헤어 063-461-7015
한길문고 063-463-3109

은파_파라디소페르두또 063-471-8525
유원지_산타로사 063-462-9062
뮤직포유(RED HAT) 063-466-8202

기 타_군산역
군산CC 063-472-3355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43-8283
고우당커피숍 063-443-1042
아리울 웨딩 063-453-3200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맥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홈페이지 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로 연락 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327-977900

예금주_ 아이씨엠 이진우

광고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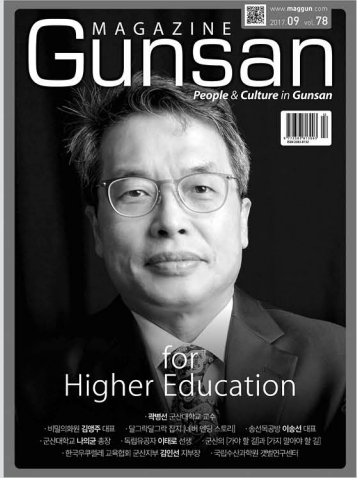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jay081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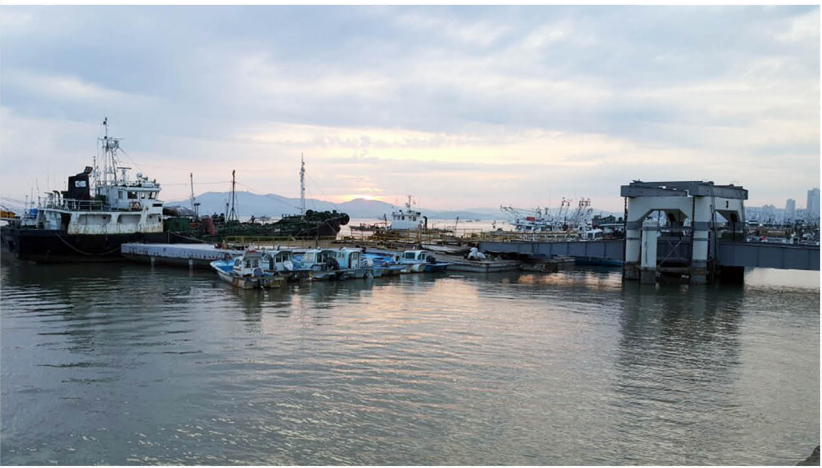
Vol. 78 | 2017.09



발행인·편집장	이진우	jay0810@hanmail.net
디 자 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진현태	gkfp3456@naver.com
	김동섭	nan901125@naver.com
주 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시 민 기 자	조종안	chongani@hanmail.net
상 임 고 문	이희찬	lhc-good@hanmail.net
시 민 기 자	배지영	okbjy@hanmail.net
시 민 기 자	이생곤	grandlee@kmni.co.kr
시 민 기 자	심권택	sys2091@daum.net
컬 럼 니 스 트	온승조	gsforum@hanmail.net
컬 럼 니 스 트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제작_ ICM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큰생길 1
출판신고번호_ 467-2011-000002
인쇄_ 진포인쇄 (063)471-1318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번호_ 군산 라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 동백대교의 개통을 통해 군산과 장항이 더 가까운 이웃으로 디가가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최 윤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응용과학부 교수

동백대교

일제강점기

곡물수탈의 역사속

호남평야 농부들 땀방울

탁류되어 흐르던

뜬다리부두가 있던 곳

여객선 터미널

뻥뻥히 들어선 손님들 사리지고

관광객들만이

한산하게 지나치는

군산항 도선장에서

제련소 굴뚝연기

저녁노을 물들이던 강건너로

다리가 하나 놓였다

군산과 장항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동백대교



“문재인 정부,
구조개혁은 각 대학에
선택은 시장에 맡겨야”

곽병선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듣는
‘우리나라 대학 구조개혁’ 방안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2015년도 한국법학회 한중춘계학술대회

춧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이날을 앞두고 <한국갤럽>이 주요 분야별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외교·복지·경제·대북·인사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복지 정책은 긍정평가가 각각 65%로 가장 높았다. 경제 정책은 응답자의 54%가 긍정 평가했다. 대북정책은 긍정이 53%, 인사는 5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가 가장 낮은 분야는 교육으로 35%(부정 20%)였다. 교육 분야는 긍정 평가도 낮았지만, 유보 의견(45%)도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욕심내면 안 돼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 반응은 대부분 호의적이다. 고등교육 분야도 공공성 강화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학 체제개편의 핵심 역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였다.

이에 광병선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우리 고등교육정책은 그동안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부정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 관료가 결정하고 대학이 따라가는 시스템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고등교육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질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욕심내면 안 된다. 구조개혁은 각 대학에, 선택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 교수는 관 주도의 권위주의적 교육정책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도록 압박한 이명박 정부와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간선제를 강요한 박근혜 정부를 예로 들었다. 그 결과 2015년 8월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가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총장 직선제 등을 외치다가 투신자살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광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토목사업에 투입한 재정을 국민적 합의에 따라 국가 차세대 사업 육성에 투입했더라면 지금쯤 그 열매가 맺어져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 집단이나 권력자의 이기심이 개입되면 정책은 재앙이 되고, 그 재앙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군산 미즈카페에서 진행된 광 교수와의 인터뷰와 메일로 보내온 답변들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적폐는 뭐라고 보나?

“자율성이 위축된 관료 중심의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그동안 우리 교육정책은 행정 관료가 결정하는 획일적인 시스템이었다. 특히 교육정책 밑그림은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 정책은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가운데 출발해야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대학의 공공성 문제다. 대학은 세속의 명예나 이익에 관계하지 않는 순수한 학문의 전

당이여야 한다. 상아탑(象牙塔)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것처럼 학문의 전당이여야 할 대학이 취업양성소로 변질된 지 오래다. 교수나 학생이나 취업에 몰두하다 보니 진정한 교육의 의미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사치가 돼 버렸다.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OECD 국가의 고등교육 구조는 평균적으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율이 8:2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8이다. 그동안 정부가 고등교육을 내버려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로는 교육 공공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국민의 교육비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언론은 본질을 파악하고 대안 제시해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토목사업에 투입한 재정을 국가의 차세대 사업 육성에 투입했더라면 지금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부연한다면?

“4대강 사업 당시 많은 학자가 토목사업은 국가의 미래 산업이 될 수 없는 반시대적, 반환경적 사업이라고 반대했다. 20조 이상 투입된 재정을 만일 지금의 4차 산업의 인력양성과 산업기반 구축에 투입했다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해결되었을 거라는 얘기다.”

4대강 사업보다 더욱 심각한 정책실패는 대학정책이라고 강조했는데?

“대학 정책은 우리나라 미래와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정책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연말이 되면 그해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가 누가 될 것인지 언론이 시끄럽다. 우리는 부러운 눈길을 보내지만, 그때뿐이다.

지금과 같이 관료 중심의 대학정책이 계속된다면 100년 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 어렵다.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대학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모든 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나라 대학은 획일화되고, 서열화된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대학 구조개혁은 시급한 당면과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언론의 성찰과 반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개혁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언론의 기본 사명은 비판과 대안 제시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앞두고 주류언론들은 양비론적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위치에 섰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당시 보도에 대해 반성하는 언론을 보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을 떠들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고, 예찬론자들은 숨어버렸다.

대학 정책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본질을 파악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구조적 문제, 사학의 비리 문제, 부실대학의 퇴출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을 넘겼다. 언론이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학 자율성 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작

우리나라 대학 구조개혁 논의는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 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쳤다. 각 정부의 교육 정책을 평가한다면?

“김영삼 정부의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대학의 문을 낮췄지만, 대학의 과도한 신설로 대학교구조개혁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IMF) 사태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채택하였고, 이것을 대학정책에도 반영하였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시작된 거다. 이로 인해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대학정책과 비슷하게 진행했고, 최초로 대학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학 자율성 침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학 선진화 정책'을 근거로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포기하도록 압박했다. 박근혜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간선제를 강요하였다.

그 결과 2015년 8월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가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을 외치면서 투신자살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또한, 프라임 사업과 같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대



학의 학사구조개편까지 밀어붙였다. 그 결과 대학의 학사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됐다.”

역대 정권의 다양한 교육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초로 각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 노무현 정부의 '대학정보 공시제도'와 2009년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제공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부실대학, 시장에서 자연 도태되는 시스템 돼야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수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대학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에 해주고 싶은 말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학 구조개혁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선택에 맡기고, 정부는 부실대학 퇴출기준을 법으로 정하면 된다. 대학의 구조도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공립대학 비중을 대폭 늘리고,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해 적어도 GDP 1.1%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대학재정교부금 법도 제정해야 한다.

국립대학의 경우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통폐합보다 거점별 국립대학 협의회나 위원회를 만들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공동의 대학원을 설립하거나, 시설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하고, 각각의 특성화 분야를 앞세운 융복합 사업단 내

지는 연구소를 설립하게 해야 한다. 사립대학 경우에는 대학 평가도 중요하지만, 법인의 건전성, 재정기여도 등을 중요 평가지표로 정해야 한다.”

내년(2018년)은 고졸자와 대학입학 정원이 역전되는 첫해가 되고, 2023년은 대학 입학정원이 고졸자보다 16만 명이 많아진다고 한다. 정원감축은 모양내기엔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항구적인 대비책은?

“정원감축을 대비한 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정부가 일률적인 지표를 만들어 정원감축을 하면 획일화된 대학이 만들어진다. 퇴출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각 대학에 자율적인 구조개혁안을 만들도록 하고, 정부는 이 계획들이 이행되는지를 감독하고, 선택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시장은 대학의 옥석을 가리고, 부실대학은 시장에서 자연 도태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1인 피켓시위 경험 후 대하는 시각 달라져

대학(국공립 사립대 포함) 구조개혁은 정부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대학도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국립대 교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구조개혁은 개별 대학의 몫이다. 대학들이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르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들을 무시하고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구조개혁을 하므로 대학의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개별 대학이 처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대학이 주체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하고, 선택은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하는 1인 시위 사진을 봤다. 당시 군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갈 급박한 상황이라도 발생했었나?

“2014년 7월 1일로 기억한다. 당시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국교련) 의장단은 청와대와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누적 성과연봉제를 강제하고, 총장직선제 포기를 강요하고,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미끼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상황이었다.

나 역시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과 국교련 공동의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교육부는 청와대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고, 국립대학 행정이 모두 지시 일변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방법은 국민 앞에 직접 호소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었다. 많은 걸 느끼고 깨우치는 시간이었다.

2005년에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방폐장 반대 시위 등은 해봤지만, 서울에서 1인 피켓시위는 처음이었다. 행인들도 다가와 구경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등, 특별한 경험이었다. 전에는 피켓시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쳤는데 그 후 달라졌다. 피켓에 적힌 구호를 읽어보면서 '오직 답답하고 절실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간다. 그래서 시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말도 걸고, 사정을 들어보고, 위로라도 한마디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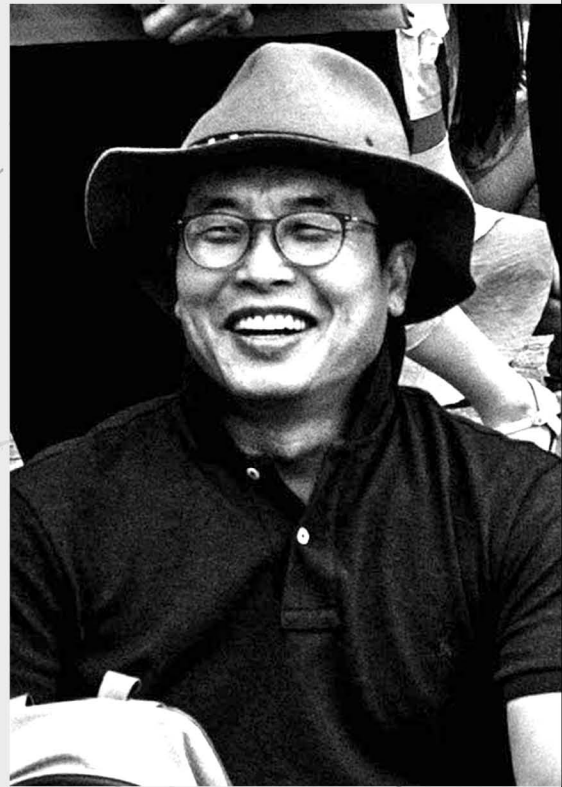
광화문1인시위(2014)



한국법학회 학술공로상 수상



백범기념관에서(전국국립대학교수대회 마치고)



군산대,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특성화 이뤄내야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과 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은?

“최근 서울대 공대 교수 26인이 각 전공 분야의 한국 산업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은 책 〈축적의 시간〉을 읽었다. 기술 선진국들은 200~300년 이상 시행착오를 축적할 ‘시간’이 있었다는 대목에 호감이 갔다.

우리는 실패를 피하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다. 무수한 실패와 시행착오 경험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고 결국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는 힘인데도... 아무튼, 학생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중요하다. 정부도 성공한 연구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실패한 도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줘야 한다.”

마지막 질문이다. 현재 몸담은 군산대학교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 비전은?

“군산대학이 처한 상황은 그다지 밝지 않다. 그렇다고 비관적이지도 않다. 대외적으로는 지역 국립대학들과 협업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산학협력이나 대학원, 또는 특정 분야의 연구 분야 등에 대해 연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기초학문에 대해 교수들이 중장기적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교육에서는 기초가 탄탄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 수요와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융복합 교과과정 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학사운영이 필요하다. 지역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대학의 재정적 지원과 특성화를 이루는 행정이 필요하다. 작지만 강한 대학, 연구와 교육이 조화되는 대학, 지역과 협력하는 대학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원도심속 비밀의 화원

공예가 김앵주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비밀의 화원’? 지나다가 간판만 보아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증을 갖게 하는 이곳. 알고 보면 공예가 김앵주 대표의 작업 공간이자 사무실이다. 간혹 꽃을 취급하는 화원(花園)으로 알고 문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화가 아니라 사실은 미술공예로서의 꽃을 그리는 공방화원(工房畵園)이다. 본래 강 건너 장항 출신인 김 대표가 군산에서 공방을 연 지도 어느덧 8년째, 대학에서는 호텔관광학을 공부했지만 결혼 후 청주 시택에 갔다가 건물 유리창과 가구 등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너무 멋지다는 생각에 포크아트(Folkart/민속예술)에 빠져들었다. 그 후 청주와 서울을 오가며 본격적으로 배우고 공부한 끝에 관련 자격증만도 스무 개 정도에 이를 만큼 전문가의 반열에 선 그녀는 이제는 공예를 지도하는 강사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녀가 최초로 공방을 연 곳은 문화동. 그곳에서 몇 년간 운영하다가 중앙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지도 4년째로서 처음엔 카페를 겸한 공간으로 오픈했지만 카페는 1년 전 접었다. ‘비밀의 화원’이라는 이름은 공예를 지도해주신 선생님이 지어준 것이라는데 뭔가 신비함을 감춘 듯한 의미를 줘 그녀의 마음에 쏙 들었다. 공방에 들어서면 실내에 가득 찬 온갖 공예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 꽃그림이 그려진 크고 작은 예쁜 고무신들이 웅기종기 진열되어 있는데 그 꽃그림들은 코팅 마무리까지 한 켤레 작업하는 데만 6시간 이상이 걸려 기본 5만 원~10만 원 대의 고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거의가 주문제작품들이다.

그녀의 최근 활동분야는 주로 벽화와 페이스페인팅. 대표적으로 신흥동 S에듀원 담장, 경암동 철길마을, 철새조망대, 모 예식장 등의 벽화도 그녀의 작품이다. 잘 그리기 보다는 독창적 묘사로 감성이 묻어나는 이미지 전달에 더 중점을 둔다는 그녀는 작품들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에 모두 저장한다. 또한 페이스북 군산스토리에 가입하면 접속할 수 있는 생방송 코너 ‘군밤’에서 여러 패널리들과 지역의 현안을 놓고 열띤 방송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룬 주제만 해도 새만금가지도, 현대중공업문제, 전북대병원 백석제 건립문제, 송전철탄문제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대부분이다. 성격이 밝고 거침없는 언변에 다소 직설적 화법을 구사하는 그녀는 공예가이기 이전에 군산시민이라는 자긍심으로 사회적 갈등 요인에도 관심이 뜨거운 듯하다.





그녀와 인터뷰하는 잠깐 동안에도 그녀의 폰은 계속 울려댄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탁자 위에 무려 다섯 대의 폰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사연을 들어보니 부업(?)으로 몇 군데의 게스트하우스 업무도 대행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전화로 예약을 받고 업소를 배정해주고 하는 일인데 그러다보니 업소마다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업소 수만큼 폰을 개통했다. 그러면서 막상 공예를 해보니 일반적 예술 분야가 그렇듯 기대만큼 수입 창출은 되지 않는다는 말도 들려준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재능을 물려받아서 돈보다는 즐길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과 남을 가르친다는 것에 자부심이 더 크고, 만일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면 성격상 틀림없이 노름으로 다 날리고 말았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 깔깔 웃는다.

평균보다 큰 키에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미모인 그녀는 꾸밈없는 차림에 다소 털털해 보이기도 하는데 한때 불어난 체중을 조절하느라 매일 3시간 이상씩 헬스클럽에 나가 열심히 운동도 할 만큼 목표가 정해지면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다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난 척, 착한 척, 친절환적한다는 오해도 받지만 자신을 사귀어 겪어보면 그 오해를 모두 풀다면서 어느덧 불혹에 접어들다 보니 이제는 관계의 중요성과 사리분별력이 더



확실해져 감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말도 들려준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혼자만의 여행을 꼭 떠나보고 싶다는 그녀.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동성동본에 이름까지 똑 같다는 것도 특이했고 현재 직장관계로 외지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과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면서 주말부부야말로 아내에게 내려준 신의 은총이 아니겠냐며 또 한 번 깔깔 웃는다. 그것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심적 해방감(?)에서 오는 남모를 즐거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라.

이름도 예사롭지 않은 '앵주'이다보니 간혹 앵두로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는 앵두 씨 언니는 이름이 자두? 포도? 하면서 장난 기 답아 묻기도 한데 아이없게도 언니 이름은 복자라면서 웃는다. 남편보다는 시댁의 가족 분위기와 시어른들의 인품이 너무 좋아 결혼 결심을 했다는 김영주 대표. 지금도 며느리인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시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랑 역시 한결같다면서 앞으로 도 지역의 문화인으로서 현재 출강 중인 군산시 평생학습관 강좌를 통한 포크아트 양성 보급과 그 밖에도 지역발전 문화일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데, 인터뷰 도중에도 수시로 찾아오는 방문객과 또 어디선가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더 이상의 인터뷰가 어려워 이쯤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비밀의 화원'
군산시 중앙로212
김영주 대표 010-2069-0540

전 세계에 300권만 있는 잡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군산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작가단 '눈맞춤'.
<네버 엔딩 스토리> 발간

글 | 조종안(시인기자)
chongani@hanmail.net



전북 군산의 '달그락달그락'(소장 정건희)은 청소년자치공간으로 알려진다. 이곳의 달그락 청소년 작가단 '눈맞춤'이 군산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잡지를 펴냈다. 청소년 작가 14명이 열심히 생활하는 다른 청소년들을 찾아 인터뷰한 글, 삽화 등을 모아 엮었다. 제목은 <네버 엔딩 스토리>(NEVER ENDING STORY). 외국 판타지 영화와 국내 가수 노래 제목을 떠오르게 하는 이 책은 청소년들 손으로 만들어져 더욱 눈길을 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행사는 청소년 작가단 소개, 잡지 제작 과정 발표, 잡지 주인공 인터뷰 소감발표, 독자(청소년 및 학부모) 축하, 저자 사인회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마친 학생들은 군산 책방에서 자신들이 만든 잡지를 이틀(12일~13일) 동안 판매했다. 수익금은 청소년들의 또 다른 삶을 알리는 데 쓰일 계획이란다.

정건희 소장은 "청소년 잡지 키워드는 '노력', '극복', '마음가짐'이다. 청소년들의 진로를 주제로 꿈을 향한 성장스토리, 슬럼프 극복 과정,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법 등이 담겨있다"고 소개한다. 이어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청소년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어른들 눈에는 부족하게 보이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삶의 한 부분을 진솔하게 써 내려간 글이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며 지원을 부탁했다.

정 소장 설명에 따르면 잡지를 제작한 목적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 작가들의 눈 맞춤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달그락 청소년 작가단 눈맞춤'에서 눈맞춤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면서 공감한다는 의미란다. 그러한 공감을 이끄는 과정이 이뤄져야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미나 청소년자치연구소(달그락달그락) 연구원은 "주변 어른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 끝나고 자그만 소책자를 선물해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격려가 쏟아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어른들의 뜨거운 격려에서 청소년들이 강한 동기부여와 자신감으로 책을 만들 수 있었지요."라며 "<네버 엔딩 스토리>는 전 세계에 300권 밖에 없는 귀한 잡지"라고 덧붙였다.

책 제목이 <네버 엔딩 스토리>인 이유

<한순간 결정한 꿈을 위한 노력>(김민석),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전우주),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조은서 시인>(남궁다희), <노력이 필요한 이유>(박윤진), <나에게 피아노란?>(유가연) <새싹을 키우는 꽃>(이채원), <위기는 곧 기회>



청소년 작가들



황두환 작가 아버지의 축하

>(황두환), <배구 소녀>(고지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청소년>(김지영), <바리스타 성장기>(김미소), <꿈을 위해 달려라 채린!!>(한영주), <럭셔리, 스마일, 성공적>(김사라), <포기 반달세>(김현수) <하늘을 나는 새>(이명석)

잡지에 실린 글 제목과 작가들이다. 제목 하나하나가 참신하고 기발하다. 김미소 작가(눈맞춤 위인팀 회장) 설명에 따르면 주제 선정, 면담자 조사 및 섭외, 질문 준비, 인터뷰, 글쓰기 멘토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글 수정을 평균 5차례 이상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생동감 넘치는 독특한 상상력과 표현력이 느껴진다. 깨알처럼 정성껏 써 내려간 문장에서 청소년 특유의 발랄함도 엿보인다.

황두환 작가 아버지는 “아들이 여름방학 때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달그락 청소년 작가들이 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며 “책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아이들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우려하면서 지켜봤는데, 하나씩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다”고 말했다. 그는 책 제목에 얹힌 이야기도 들려줬다.

“무엇보다 아들이 책 제목을 ‘네버 엔딩 스토리’로 지었다고 해서 놀랐어요. 우리말로 풀이하면 ‘끝이 없는 이야기’라고 해서 왜 그렇게 정했느냐고 물었더니 ‘아빠,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이루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은 끝이 없는 이야기죠.’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뿌듯했다. 이 책이 힘겨운 삶에 꿈을 잃어가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극복’ ‘마음가짐’

등이 키워드인
청소년 작가들
글 모음

취재에 참여한 작가들은 미래 최고의 저널리스트 혹은 베스트 셀러 작가가 꿈인 청소년도 있었고, 배구를 좋아하는 적극적인 청소년, 과묵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는 믿음직한 청소년, 항상 밝으면서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서글서글한 청소년, 자신만의 뚜렷한 확신과 프라이드를 갖춘 청소년, 어렸을 적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는 청소년 등 다양했다. 그들의 정성이 깃든 글 14꼭지 중 눈길을 끄는 몇 대목을 소개한다.

김민석 작가의 <한순간 결정한 꿈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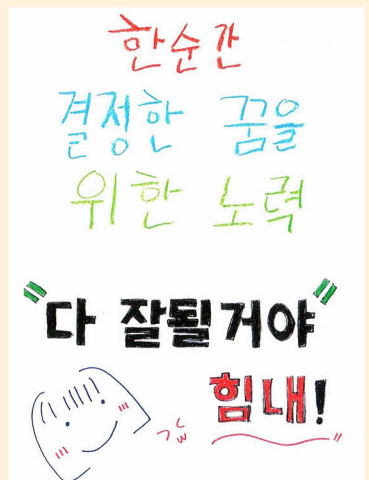
김도는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것을 원했다. (줄임)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운영한 글로벌 해외 연수에 참여하였고, 뉴질랜드에 가서 국제교류 지도사를 만난 후 교사였던 꿈은 꿈이 국제교류 지도사로 바뀌었다.(줄임) 고작 한 달간 만나본 국제교류 지도사를 보고 자신의 꿈은 꿈이었던 선생님 대신 국제지도 교류사라는 직업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나는 인터뷰를 하면서 김도는 청소년이 너무 급하게 꿈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그 꿈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 생각과는 달리 자신이 정한 꿈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했고, 자신이 그 꿈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국제교류지도사가 되려면 여러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줄임)

그녀는 급하게 결정한 꿈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김도는 청소년 처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결정한 꿈이라도 확신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를 응원한다. 김도는 청소년에게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원하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채원 작가의 <새싹을 키우는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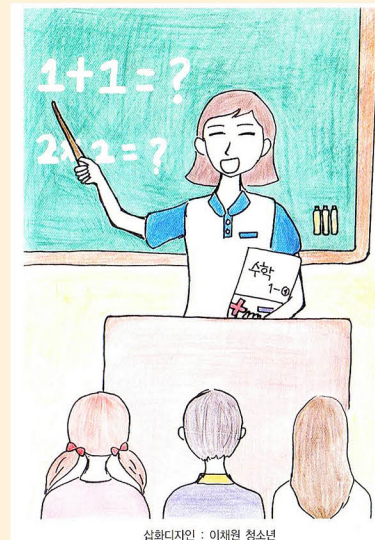
흔히 위인이라 하면 다들 ‘옛날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위인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말은 우리 청소년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용기를 북돋아 줄 청소년 위인을 소개해주려고 한다.



이 청소년 위인의 꿈은 초등학교 교사이고 이름은 유난초다. 난초 청소년은 평소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나 질문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가서 물어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은 평소에 가르치는 것과 아이들을 좋아하는다. 끼와 재능,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며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고 싶어 꿈을 가지게 되었다. (줄임)

필자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들이라면 세대 차이가 나서 공감하기도 힘들고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야 해서 많이 벅찰 것 같다. 하지만, 누군가가 힘들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일이 자신에게 매우 행복한 일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남의 꿈에 간여 살지 말고 꿈을 펼쳐봤으면 좋겠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꿈이 있으면 꿈만 꾸지 말고, 그 꿈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삽화디자인 : 이재원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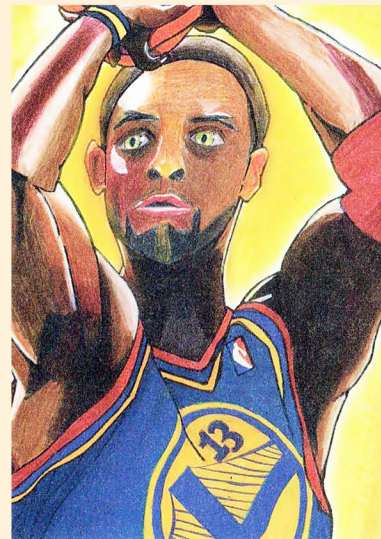
황두환 작가의 <위기는 곧 기회다>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노영우 청소년이 말했다. 그가 농구선수를 꿈꾸은 지는 벌써 2년가량이 되었다. 즉,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다. (줄임)

그를 처음 봤을 때 농구선수가 되기에는 왜소한 체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꿈이 너무 막연해 보였다. 노영우 청소년은 농구선수가 되고자 한 다음부터 매일 자신이 농구선수가 된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또한, 상상에 그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실행에 옮겼다. 여가 시간에는 항상 그를 농구장에서 볼 수 있었고 그의 손에는 농구공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체격을 극복하기 위해 식사에도 신경을 쓴다. (줄임)

그는 프로 선수를 꿈꾸고 있다. 해외 농구 거장들이 밝아온 해외 리그를 꿈꾸며 동경하고 있다. 그의 롤 모델은 스테판 커리(Wardell Stephen Curry II)다. 스테판 커리의 손에서 떠난 공이 멋지게 포물선을 그으며 골대 속으로 빨려들어 가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언젠가는 커리처럼 멋진 슛을 쏘보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무언가에 신체나 능력에 한계를 느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노영우 청소년은 자신의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연습으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에 애착을 가지고 농구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노영우 청소년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기를 응원한다.



삽화디자인 : 송현우 청소년

김현수 작가의 <포기, 반델세>

연구원에 꿈을 가진 이현지 양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줄임)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과학관련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TV속 데니스 홍 연구원은 창의력은 호기심에서 나온다고 말하였고, 이에 현지양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홍 연구원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양은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산업재해구조 로봇을 만들고 데이스홍 연구원처럼 강의도 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원이 되고자 합니다.(줄임)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자’가 현지양의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를 쉽게 포기하려고 하면 ‘넌 할 수 있어’같은 진심어린 조언과 응원들을 해준답니다. 현지양은 앞으로 학교 동아리 시간에 열심히 실험을 하여 기본 지식을 쌓으려 하고요. 과학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을 참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양에게 연구원의 꿈을 가진 청소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시작했으면 중간에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조금만 힘내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 이것이 현지양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현지양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꼭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소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는 청소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명석 작가의 <하늘을 나는 새>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로봇처럼 공부하는 황해구 학생의 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 생각을 말해보려 합니다. 그는 대체적으로 높은 소득을 받는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도 시험 기간이 되면 밤을 며칠씩 새가며 공부를 했습니다.(줄임)

해구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한탄했습니다. 그는 현재 보다는 미래에 얻을 행복만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변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줄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해서인지 의, 식,주가 보장되고 어떤 어떤 일이든지 했을 때 즐거우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해구) 그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셔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죠. 해구에게 해주고픈 말이 있습니다.

“친구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미래를 위한 과한 준비보다는 현재에 너를 행복하게 해줄 무엇인가를 찾아 조금 쉬면서 하면 좋겠다. 사랑해 친구야♥”

해구가 로봇보다 광활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는 가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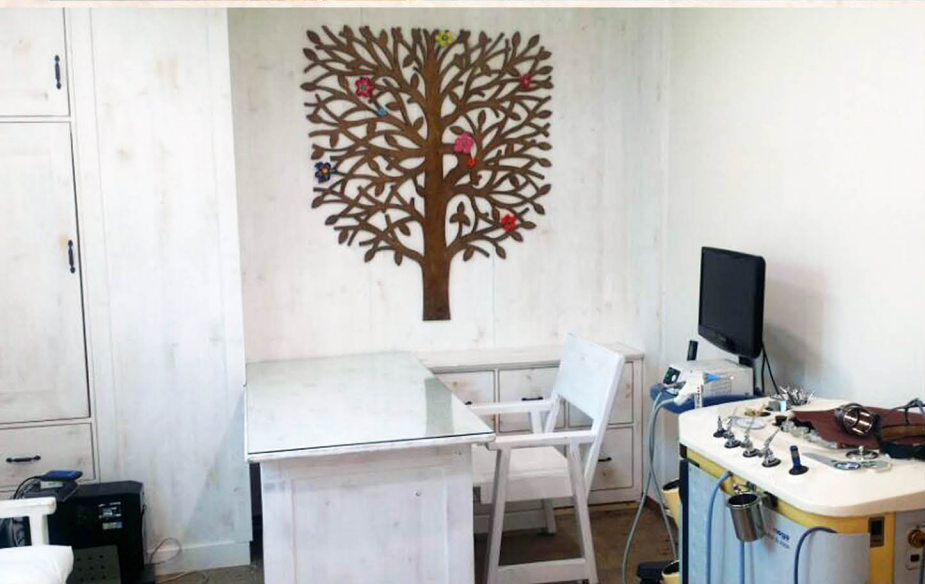
송선 song-sun 목공방
이송선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개복동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목공방을 운영하는 이송선(51) 대표. 말수가 적는데다가 다소 육중한 체구에서 느껴지는 듬직한 그의 작품에서도 그대로 구현된다. 차별화된 디자인에 단순, 무식, 튼튼하게 제작하는 것을 스스로의 특징이라 말하는 그는 군산대 미술학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을 수료한 조소(彫塑)전공자이다. 대학 시절에는 오직 공부와 작업에만 열중하면서 470여 점의 작품을 남겼고 40대까지만도 1,000점 이상의 작품을 제작할 만큼 열정이 넘쳤다는 그는 학업을 마친 뒤 20여 년을 전공분야에서 활동했다.

군산만 해도 롯데마트 앞 '아침'이라는 조형물과 주택공사 미룡지구 조형물, 삼성웨르빌의 '군산사람들'을 비롯하여 한라비발디, 전주도립미술관 놀이터의 '호랑이', 과천국립현대미술관, 김해 중앙병원, 불갑산 상사화 조형물, 그밖에도 부안 격포 등지에서 탐과 혼이 났 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개인전, 단체전만 해도 1993년도 전주에서 최초 개인전을 가진 이래 2015년까지 전국에 걸쳐 약 80여회에 달할 만큼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다.

70여 평 면적의 그의 공방에 들어서면 고가의 목공 장비에서부터 수많은 연장들과 목재들로 실내가 거의 꽉 찰 정도다. 그가 주로 제작하는 것들은 침대, 책장, 탁자, 의자를 비롯한 중대형 가구에서부터 악기걸이, 스피커 등 소품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데 거의가 주문 제작에 의한다. 가격은 목재와 공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가 선호하는 목재는 핀란드산 레드파인이다. 레드파인은 작업 과정에서 다루기가 편하고 색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적당하기 때문이다. 튼튼하면서도 오래 써도 쉽게 질리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카펜터로서 그의 한결같은 철학이기도 하다.

사실 목공은 조각가로 활동하면서부터 취미로 시작한 것인데 5년 전 본격적으로 공방을 오픈으로써 평생의 직업이 된 셈이다. 그의 공방에는 여러 대의 기타가 벽에 걸려 있고 탁자에는 악보도 있다. 혹시 원도심이나 은파 등지의 버스킹 공연에서 기타 치며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기타리스트로서 사회봉사 차원의 거리공연에도 열정이 넘치는 복합적 문화예술인이다. 육중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 있는 목청,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장르를 ‘강산에’ ‘안치환’ ‘한대수’ 등으로 대표되는 포크락(folk-rock)이라 말한다. 하지만 최근엔 역시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김광석, 정태춘, 이동원, 조동진 류의 조용하면서도 시적인 감성이 깃든 노래도 즐겨 부르고 있다.

알고 보면 그의 기타는 기간만 따졌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연륜을 지녔다. 중2때부터 취미에 빠졌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에는 ‘삼각형’이라는 통기타 동아리를 결성, 대학가요제에 출전하는 등 헝기 넘치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고, 이후 대학 졸업과 동시 생업에 매진하면서부터 약 20여 년 동안은 기타와 멀어진 세월이었으나 내면의 열정은 어쩔 수 없었던지 7년 전 개복동 작은 골목에 ‘나무갤러리’라는 자생적 문화 공간을 연 적도 있다. ‘나무갤러리’는 2층 규모의 작은 커피숍으로 문화예술 적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으로 실제로 몇몇 음악적 엔터테이너를 배출하기도 했는데 JTBC 히든싱어 방송 무대에서 김범수 노래로 스타덤에 오른 서해대 출신 전철민 군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힐 만하다. 나무갤러리는 공방 개업과 함께 접었는데 이송선 대표 역시 금년 초 8명으로 결성된 ‘사랑나무’ 7080팀원으로 합류, 시간이 날 때마다 은파호수 변, 내항 주변 등에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어려운 이웃도 돕는 거리공연을 펼치고 있다. 목조형물 작가로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은 기본, 좋은 목재로 개성을 살리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튼튼한 작품을 남기겠다는 그는 자신의 본업도 열심히, 봉사활동인 거리공연도 열심히 할 생각이라면서 대패질을 잠시 멈추고 이마의 땀을 닦는다.

송선목공방
군산시 중정1길3(KT옆길)
010-2502-3488



국립군산대학교 나의군 총장 INTERVIEW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군산대 개교 70년을 맞이한 소회는?

70년이면 장기적 성장을 위한 미래 청사진이 명확해지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기간이다. 1947년 군산사범학교를 모태로 출발하여 1991년 종합대학으로 개편되고, 올해 산학융합공과대학을 신설하면서 7개 단과대학체계를 갖추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우리 대학교가 지역 대표 대학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대학, 나아가 지역을 거점으로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다진 느낌이다. 감회가 새롭다.

총장 취임 후 변화는?

취임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총장실의 문턱이 낮아 졌다고 들 한다. 사실 나는 문턱이 낮아졌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취임 직후부터 매년 단과대학을 순회하며 학생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학생 뿐 아니라 교수, 직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단과대학, 학과별로 교수님들을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직원들과의 미팅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다. 구성원들의 합의와 지원이 없는 혁신은 지속적인 동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과 합의의 힘으로 재임 이후 중요한 변곡점이 많았지만, 변화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

총장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군산대학교만의 특화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 대학교의 키워드는 특성화, 산학협력 특화모델, 수요자 중심 교육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 선순환적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개선 등에 집중했다.

얼마 전 우리 대학교는 기업체가 선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 다시 말해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에서 전국 유일하게 건축, 토목, 기계, 자동차 등 4개 부문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전국 최다부문이다. 4개 분야가 동시에 선정된 대학은 우리 대학뿐이다.

또한 링크사업의 후속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링크플러스)에 선정되면서 산학협력 특화대학으로서의 입지를 완벽하게 다지게 되었다. 이 사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링크사업에서도 5년 동안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전략들이 모두 좋은 성과를 냈다.

역대 총장 최대 발전기금 모금을 하셨는데, 모금 이유 및 과정 (모금액은 얼마인지?)

재임 이후 지금까지 모금한 발전기금은 현물 기부 137억 원을 포함해서 155억 원에 이른다. 전북 지역의 지역력(地域力)과 우리 대학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히 좋은 성과이다. 이 중 인상적인 것은 2015년에 개최했던 '대학발전 후원의 밤'과 구성원

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발전기금 릴레이'이다.

몇 년째 계속된 등록금 인하와 국립대학 경상비 감축 등 재정난이 심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줄일 수 없어 고민하다가 대학발전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후원의 밤에서만 8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이 모금되었다.

지역사회, 산업체, 동문, 교직원 등 각 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셨고, 덕분에 몇 년째 계속되는 등록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감사할 뿐이다.

군산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 수요자라면 학생들이고, 또한 산업체이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계 요구를 반영하며 교육과정을 개선해 왔고, 산업계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상을 연구했으며, 산업현장의 니즈와 인력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쌍방향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인문사회예술계열을 포함한 전 학과가 공유할 수 있도록 융합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군산대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 대학교의 슬로건은 지역 제일의 특성화 대학이다. 이 말은 지역주력산업이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인력 양성 및 연구력을 통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앞으로 대학이 이룬 성과를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군산 지역 지자체, 연구소, 산업체 등과 연계한 산학 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현안문제 및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에도 집중하겠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해 쌍방향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시대흐름을 리드하는 인재 양성에도 주력하겠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이후 학생들의 취업률도 많이 상승했다. 가족화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조사해 이를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있고, 계학과 운영 및 인문사회예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융합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업률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단과별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구축해 정기적인 순회 상담의 날을 정하고, 학생들의 취업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로지도·기업채용동향 및 경력개발상담, 진로&직업 및 개인심리·대인관계·학습·가족관계 검사 및 상담 등 상담내용을 학년 별로 적합한 내용으로 세분화해 학생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학문의 기본을 바로 잡아주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립대가 취업율을 평가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견해는?

그동안 국립대학은 진리탐구, 인문정신에 바탕을 둔 보편적 교양정신 함양 등을 목표로 해왔다. 이러한 근본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경제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일부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대학교는 국립대학의 기본 책무를 최대한 지키는 범위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필요한 보호 학문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예로부터 지성의 전당인 대학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성장시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고급인재 양성에 매진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이 시대의 빠른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리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인류 문명의 성장핵심은 상상력과 지성에 바탕을 둔 인문정신과 창의력이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빠르게 일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대학의 책무와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학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모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필요한 정보를 발견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져야만 길이 보인다.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었으면 한다. 교내에서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만 참여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면 기회와 길이 많이 있다.

취업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학생들은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견 기업 서너 개와 맞먹는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는 상생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 군산대학교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그 역량이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는 군산대학교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지역 내 우수 인재들이 좀 더 많이 군산대학교에 진학했으면 한다. 그 인재들이 중추가 되어 고향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삶을 풍요롭게 하며, 지역의 성장이 다시 지역대학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고리가 형성됐으면 한다.

氏名	李泰魯	姓名		指紋	
年齡	34	年	11	月	日生
身長	1.70	身長	1.70	身長	1.70
本籍	金北	籍貫	金北	籍貫	金北
在籍地	金北	在籍地	金北	在籍地	金北
住居	金北	住居	金北	住居	金北
姓名	李泰魯	姓名	李泰魯	姓名	李泰魯
別名	李泰魯	別名	李泰魯	別名	李泰魯
入籍日期	昭和3年9月12日	入籍日期	昭和3年9月12日	入籍日期	昭和3年9月12日
出籍年月日	昭和3年9月12日	出籍年月日	昭和3年9月12日	出籍年月日	昭和3年9月12日
籍務所名	西大町	籍務所名	西大町	籍務所名	西大町
檢査官署	西大町	檢査官署	西大町	檢査官署	西大町

이태로 선생 서대문형무소 기록



양지바른 곳으로 이장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이세윤 전 시의원

김 소장이 작성한 군산 출신 독립유공자 인명록(2015년 현재)에 따르면 의병항쟁 8명, 삼일만세운동 20명, 국내 항일운동 11명, ‘이엽사농장 소작쟁의(옥구농민항일항쟁)’ 18명, 군자금 조달 4명, 학생 운동 3명, 만주 방면 4명, 광복군 1명, 중국 방면 1명, 일본방면 3명 등 모두 73명이다. 이는 전북의 시군 중 임실군 다음으로 많았다. 공훈 분야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김 소장은 “국내 항일운동의 이태로(1899~1932) 선생은 노동운동 뿐 아니라 옥구농민항일항쟁에도 공적(소작쟁의 자문 및 대구 복심법원 공판에 군산 대표로 파견)이 있다”며 “1928년 9월경 일경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 3월 1일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고 부연했다.

책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87쪽)에 따르면 이태로 선생은 1925년 10월 전북청년연맹을 결성하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2월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조선공산당 전북위원회 옥구(沃溝) 지역 책임자로 있으면서 대중의 계급의식과 항일의식 고취에 진력하였다. 같은 해(1927) 군산노동연맹과 옥구청년동맹 창립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3월 군산노동연맹 집행위원회에서 서무·재정 담당으로 선출되어 활동자금 모금 및 집행을 담당하였다.

독립유공자 이태로 선생의 생애

“전북 옥구군(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242에 본집을 둔 이태로(李泰魯·33) 씨는 옥구농민조합(沃溝農民組合)을 비롯하여 군산노동연맹(群山勞動聯盟)의 상무위원으로 군산 신간지회(群山新幹支會)의 상무 간사로 사회운동에 헌신하여 맹렬히 활동하든 이로서 3년의 옥고를 치르고 출소, 그동

안 병으로 신음하다가 지난 28일에 자택에서 영면하였다.”

이태로 선생 죽음을 알리는 1932년 10월 3일 치 〈동아일보〉 기사다. 몇 가지 의아심이 들었다. 김양규 소장 책자는 2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는데 신문은 3년의 옥고를 치르고 출소했다고 해서였다. 군산 신간지회(신간회) 활동 내용도 책자에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유족들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량을 일률적으로 짧게 정리했고, 또 국가보훈처 자료만을 토대로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더욱 의아한 것은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기에 군산에서 경성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았고, 감옥살이를 3년이나 했으며, 또 광복 60년이 지난 2005년에야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았느냐는 거였다. 궁금증들은 이세윤(71·이태로 선생 당질) 전 군산시의원에게 자료(재판관련 문서)를 건네받

고, 함께 묘소를 돌아본 후 풀리기 시작했다.

“독립운동가 검거 선포이 전국적으로 불 때였죠. 당숙 어른(이태로 선생)은 경성 법원(검찰)의 지시로 군산 경찰이 체포해서 서울로 압송됐다고 합니다. 어른의 본적·출생지·거주지 등은 <동아일보>가 보도한 주소지와 같아요. 당시 당숙의 직업은 농업,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 즉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노동의식을 함양시킨 죄였죠.

처음엔 경성지방법원에서 2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감옥에서 죄가 추가됐다 더군요. 경찰에 체포되기 전 취재 보도한 기사를 트집 잡았던 것이죠. 체구가 건장한 분이었는데 일경의 혹독한 고문으로 몸이 쇠약해지자 형기를 마치기 전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당숙이 개정역에 도착했을 때 군산, 임피 등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환영했다고 들어요.”

고유문과 옛날신문에 따르면 이태로 선생은 광무 3년(1899)에 태어나 독학으로 학문을 닦았다. 스물넷에 옥구 김참봉댁 규수(金氏)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그 후 딸 둘을 뒀고, 집안 조카(聰世)를 양자로 들였다. 부인 김씨 역시 귀부인다운 용모에 문장력도 뛰어났다. 몸이 무척 유연했으며, 남자들도 따르기 어려울 정도로 걸음이 빨랐다고 한다.

명석한 두뇌에 명필이었던 이태로 선생은 20대에 〈조선일보〉 〈내외일보〉 군산총국장 및 전북기자단 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1926년 7월 조선문(한글) 신문잡지 군산기자단 발기회 때는

선언 규약 의안을 작성하였고, 창립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피선됐다. 그 외 4년(1825~1928) 동안 신문배달부 동맹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펼쳤다.

1928년 2월 옥구농민 항일항쟁 공판을 취재 보도 하는 등 신문기자와 노동운동가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해 9월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 옥고를 치르고 1931년 8월 출소하였다. 출소 후 고문 후유증으로 1년여를 병석에서 신음하다가 1932년 9월 28일 순국했다. 당시 나이 서른셋. 병구완하던 부인(金氏)도 그해 선달에 순절하였다.

길일을 잡아 이장하는 일만 남아

이태로 선생 묘소를 찾았다. 주소는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송호마을). 지번만 다를 뿐 옛 거주지와 같은 마을이다. 이세윤 전 시의원은 잡초가 무성한 봉분과 상석, 비석 등을 차례로 돌아봤다. 무거운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보던 이 전 시의원은 감회가 새로운 듯 머뭇거리더니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내 평심을 되찾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다.

“당숙 어른을 이곳에 모실 때 가족 모두가 쉬쉬했다고 합니다. ‘조선공산당’이라는 글자 때문이었죠. 근처에 문중 선산이 있음에도 누가 알까 무서워 구석진 이곳에 모셨던 것이죠. 석물(비석, 상석 등)은 1991년 4월 설치했는데, 그때도 저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이태로 로기가 뭔지… 저하고 사촌 형님에게는 해가 될까 봐 연락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옥구군 의원을 할 때였고 사촌



형은 경찰이었는데도 말이죠. 시대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육군 장교 출신이고, 군산 시의원 경험도 있는데요.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신원조회 할 때마다 누가 이 양반(이태로 선생) 이름을 거론할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우리 집안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어른이 있다는 말을 못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산속을 장지로 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집안 내력을 철저히 숨기기 위한 방책이었죠. 훗날 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을 권했음에도 알려지는 게 두려워 싫다고 했으니까요”

산에서 내려오려는데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했던 당숙의 삶을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주기까지는 6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습니까. 길일을 잡아 양지바른 곳으로 이장하는 일만 남았죠. 서훈을 받은 후에도 숨죽이고 지냈는데, 이제야 자랑스럽게 어른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라는 이세윤 전 시의원의 한마디가 산사(山寺)의 법문처럼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기억과 가야 할 길 가야 할 길

- 근대문화유산의 도시 군산, 비판의 눈으로 역사인식 계기 삼아야
- 일제 강점의 잔재를 볼 것인가, 수탈 극복의 근세사의 아픔을 볼 것인가.
- 개혁·진보 성향의 문화예술인들 지역 정서 벗어난 군산행

글 | 채명룡(기자)
cmr0118@naver.com

군산의 개복동 골목길

골목길이 어디 편하랴만 군산의 골목길은 유난히 좁고 울퉁불퉁 거린다. 근세사의 굴곡진 삶을 간직한 곳이라서 그럴까. 일본풍(?)의 건물들과 국적 불명의 묘한 분위기가 옛 도심지에 남아 있다. 이걸 자랑스런 근대문화로 불려야 하는지, 아니면 극복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걷다보면 때론 혼란스럽다.

찾는 이 없던 군산의 옛 도심지 골목길, 그 길 위에 나는 서 있다. 변창했던 기억만 남은 건물 주변이 근대의 이름으로 다시 복원되고 나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골목마다 애환이 서린 군산 구도심. 일제 강점기엔 부두 노동자와 가족들의 눈물과 한숨이 여기 허름한 골목 모퉁이마다 배어 있었다. 그 중심이 근대역사지구이다. 근대라는 이름으로 못사람들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

어제를 같이하고 있는 영화동 일대는 해방 이후 암울한 시기 미군들에게 우리 여인네들이 웃음을 팔았던 곳이다. 이글스크립 스톡크립 등등 화려했던 지난밤들이 우르르 몰려나올 것같은 영화동 거리. 이 골목엔 큰 덩치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양공주, 혹은 양씨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던 우리네 누이들이 있었다. 누가 댄서의 순정이라 했는가. 영화동 거리는 절박했던 삶의 현장이었을 뿐이다.

지금도 그 흔적을 갈매기 깃털만큼 남겨놓고 있는 영화동, 그 길을 건너면 일본인들이 거주했거나 통치를 위해 필요했던 기관들이 널려있었던 월명동, 그 길을 넘으면 개복동이다. 영화동의 네온사인 화려했던 거리, 얼기설기 얹힌 전깃줄이 혼돈의 세월을 말해준다.

빙빙 돌아 신창동, 월명동 근대의 거리에 섰다. 불금이 되면 여기를 찾는 이들로 소란스럽다. 그 거리로 바깥사람들을 더 불러들이려고 요즘 한창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근대소설마을도 그렇고 근대역사지구 사업도 그렇다. 근대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했지만 일제강점 기간의 피눈물 나는 삶의 현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개혁·진보 문화예술인들의 기지개, 그리고 향토색 강한 군산의 문화예술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가던 일제 강점기 쌀 수탈의 현장인 항구 뜬다리 부두 앞에 섰다. 군산사람들도 자주 찾지 않는 곳이다. 밀물과 썰물 때 바닷물의 높이에 따라 올라오고 내려가는 배를 대는 자리. 586세대들이 사회책에서나 접했던 현장이다. 이 항구에서 대야 큰 들과 만금평야에서 난 쌀들을 일본으로 실어 나랐다.

이런 군산의 아픔이 몇 년 전부터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일본풍의 도심을 간직하고 있는 게 어디 군산뿐이라만 호들갑이 예삿일이 아니다. 일본풍의 잔재가 훨씬 많은 곳으로 치자면 진해나 목포가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게 없다. 필자가 호들갑이라 낮춰 부르는 이유는 극복해야 했던 일제의 잔재들이나 정신문화 등이 아무런 비판 없이 군산 속에 스며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 때문이다.

아는지 모르는지 군산과는 별로 관련이 없었던 문화예술인들의 발길 또한 찾아지고 있다. 어쩌면 감취야할 치부를 들내 놓는 지금, 그들의 눈은 혹시라도 보이는 것만 보지 않을까. 그런 비판에서 몇 걸음 비켜 서 있던 분들이 종종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등장하곤 한다. 보수주의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득세할 때 진보적인 문화예술은 바닥이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발길이 찾아진 분들을 보니 시대가 바뀌니 은근슬쩍 건드려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진보와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던 단체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일 또한 비슷하다고 본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바닥을 기었던 그런 단체들이 부활할 수 있을까. 필자 또한 10여년 전 그런 단체의 한 축을 맡았던 일이 있으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통렬한 반성이 먼저여야 한다고 본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채만식의 '타류'에서 표현했던 썰물이 온갖 시름을 부둥켜안고 내려가는 잿빛 금강하구를 바라본다. 군산이 혼란기를 겪고 있다고 하지만 진영 논리로 예술이 퇴보와 부흥을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될까 생각한다. 발끝에 툭툭 걸리는 게 비단 긴 세월을 지킴다 떨어져나간 항구의 콘크리트 부스러기만은 아니다.

근대라는 이름이 여과없이 입에 오르내리고, 정치 지형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진보 예술인 부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군산이 그렇게 만만한 동네는 아닐 것인데, 흙탕물같은 밀당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조금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다가서야 하지 않을까.

근대화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일제 잔재가 때론 미화되기도 하는 게 월명동, 신창동 거리이다. 가끔씩 눈에 걸리는 일본식 풍의 창문을 단 건물과 집을 본

다. 건물은 왜색풍이지만 정체불명, 국적불명의 외형들이 눈에 거슬린다. 뼈에 사무친 잔재와 아픈 역사가 아련하다.

문화예술인들의 군산행은 반길 일이다. 그들의 행로는 필요하니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 지역 문화 예술계에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골목을 걷는 내내 그런 인사들로 인해 군산사람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했다. 걱정은 기우라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 건 진보와 개혁이 갈 길이 아니다.

비판의 눈이 필요한 군산근대문화유산

-‘일제 잔재 청산 운동, 옳은 일이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필요

길을 바꿔 군산사람들과 영원한 동행인 월명공원으로 들어섰다. 1990년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회오리처럼 일어났다. 당시 국립박물관으로 활용되었던 옛 중앙청 건물도 철거 되었다.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생각하면서 명산동 동국사에서 월명산 오르는 입구, 예전에 삼일공원으로 부르던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는 월명공원에 남아 있던 일제의 잔재물을 철거하기 위해 시민운동이 벌어졌던 장소이다.

그대로 남겨두고 후손들의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비판 세력은 마치 부도덕한 부류로 취급되었다. 역사바로세우기에 편승한 일부 세력에 의해 일제 침탈과 강점의 증거들이 일사천리로 철거되었다. 그 사실은 마치 독립운동 하듯 미화되었다.

농장과 정미소를 경영하며 군·옥 농민을 수탈했던 일본인 모리구끼(森菊五郎)가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보국탑이 있던 곳에 다다랐다. 이 자리를 맴돌면서 월명공원 일제잔재 철거에 앞장서면서 중요 문화예술계 인사로 행세했던 인사들을 생각해본다. 그 흥흥한 시기에 진보와 개혁적인 문화예술계 사람들은 무얼했을까. 아마도 몰랐을 것이라고 위안을 삼는다.

1995년 5월 1일의 일제잔재철거 개막식에 이어 한 달여 동안 지금 오르는 월명산의 보국탑을 비롯한 성사당, 자우

해민비, 개항35주년기념탑 등 일제의 침탈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철거되었다. 역사적 가치 주장이 제기되자 철거 후 일제의 만행을 전시하자고 합의했다. 2012년부터 15점의 석조 부스러기들만 근대역사박물관 한편에 초라하게 남겨져 있을 뿐이다.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그리고 근대문화를 내세우는 오늘에 이걸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월명산에 서서 백화양조와 군산여고를 내려 보며 왜 그랬을까 몇 번을 생각한 다. 이런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누군가에게 항변하면서 지역을 지켜 왔던 고인이 된 한 시인을 생각했다.

그들이 앞 장서 막지 못했다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갔던 그 날의 ‘눈에 보이는 걸 없애면 마음속에서도 지워질 것’이라 여긴 듯했던 파괴적인 행동과 생각의 당위성에 차마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를 비롯해 문화예술인이라고 한다면, 일제 잔재물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졌던 반역사적 행위를 비판하지 않은데 대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개복동 국도극장 앞에서 고은

고은 시인 생가입구





◀그물망을 빛 가리개로 건 공공미술사업
▼2006년도의 해망동 공공미술사업



그날의 시간들이 월명산 나무가 자라듯이 흐르고 흘러 근대역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미 부여와 바라보기가 생겼다. 철거했던 일제강점의 증거들은 숲한 사람들 사이에 너무 외롭다. 지금처럼 근대역사 박물관 한편에 조각조각 남아 그들의 흔적만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라면 복원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의 사진 자료나 행위들에 대해 실상을 알려야 하는 게 아닐까.

선부른 판단과 시류에 따랐던 일부 역사 연구 단체들과 인사들이 앞장서 파괴한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런 단체와 사람들이 군산 문화예술의 주류로 버젓이 행세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군산은 골목도 골목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높다.

근대역사, 그리고 진보 개혁적인 예술인들의 발빠른 군산행-지역 문화예술이 가야할 길, 그것은 향토색

월명산 수시탐을 지나 지금은 철거된 해망동 산동네에 섰다. 여름에 큰 소리쳤던(바람이 많았기에) 해망동 사람들을 이제는 볼 수가 없다. 이 해망동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내려와 정착한 마을이었다. 피난민촌은 군산 여러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외부 사람들로부터 '군산은 뿌리가 없는 고장'으로 혹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오랜 전통을 간직한 씨족 사회가 옛 옥구 지역에 지금도 건재하다는 걸 감안하면 뿌리론은 잠시 접어두면 좋겠다.

왜 하필 뿌리론이나 하면,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군산을 내려 보는 듯한 역사인식 때문이다. 근대도시로의 향도 군산은 개항과 함께한다. 1999년의 개항 100주년을 맞은 후로 18년이 지났다. 그런데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군산시의 역사가 일제 강점기에 생겨난 것처럼 보는 건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다. 군산의 뿌리는 옥구이며, 옥구군이 1997년 군산시로 통합된 이후 불과 20년이 지났다. 도시의 이름은 달라졌지만, 이 지역은 삼한시대 등 역사 이래 호남 서북단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군산이 고향인 출향인들 중에서 문화·예술인들의 귀향도 잦아지고 있다. 시대상의 변화, 혹은 자리를 잡기 위한 새로운 물결로 이해한다. 하지만 군산은 문화예술이 크게 부흥되었던 곳은 아니지만 뿌리는 울곧게 간직해 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던 시기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상당한 진통도 있었지만 개혁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성향을 띤 예술가들의 활동도 눈이 띄었다. '레지던시'라는 이름의 예술적 행위들도 많아졌고, 신진 예술가들의 프로젝트도 종종 벌어졌다. 물론 나름의 발자취를 남겼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았다. 본인들의 예술적 행위이자 성과라고 하는 데 할 말은 없지만, 그들은 여기에 무엇을 남겼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보적, 개혁적인 예술인들 위주로 공공미술사업이 벌어졌던 걸 기억한다. 해망동 998번지 일대, 필자가 밟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2000년대 초 '천야해일(天夜海日)'이란 이름의 프로젝트가 벌어졌다.

이 지역 글쟁이 시 몇 편을 골목이나 계단에 써 놓거나, 해망동의 철거되는 집 모양을 어느 집 방 한 칸에 만들기도 했다. 철거된 집 생활의 잡동사니들을 모아 놓거나 그물을 이용해 햇빛 가리개를 만들었고, 빨랫줄에 매단 런닝구에 '안아줘'라고 써 넣었다. 사람이 사라져버린 폐가, 그리고 오가는 골목길에 잡초며 이름 모를 들꽃을 보물찾기 하듯 새겨놓기도 했다.

참여한 작가들은 힘들었겠지만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프로젝트 기획자와 얘기할 기회가 생겼다. "이게 공공 미술이냐"고 물었다. "자연스럽게 스러져 가는 게 이번 기획의 의도"라고 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20여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 어제처럼 또렷하다.

해망동을 내려와 꾀보선창 쪽으로 발길을 잡는다. 언청이 입처럼 생겼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해망동 공공미술 몇 년 후 이 선창에서 비슷한 사업이 벌어졌다. 잊혀져가고 몰락해 버린 어판장을 이용해 만장이나 다른 예술적 행위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모으려는 작업으로 이해한다. 먹고살기 위한 방편이었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최소한 기획했던 방향으로 그렇게 되었을까. 혹시 어판장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1954년 무렵 군산극장의 모습(군산시 제공)



일제강점의 증거 보국탑 철거장면



일제잔재 철거식

필자는 이런 게 바로 진보, 혹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일부 예술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군산 땅에서의 예술적 폭력이라고 본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군산의 눈물, 개복동
- 유행처럼 쫓지 말고 진정으로 다가서라

째보선장을 지나 화려했던 추억의 골목, 개복동에 들어섰다. 여기가 1990년대까지 군산의 중심이었다. 개복동은 10여년 전 예술인의 거리로 만들려다가 실패한 곳이다. 지금도 이 개복동 골목을 부활시키려는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고은 시인이 청년기에 문학의 열정을 불태웠던 비둘기 다방 자리도 건재하다. 국도극장, 군산극장으로 기억되는 극장 골목은 그 시절을 추억하듯 옛 영화만 간직한 채 서 있다. 개복동이 그렇듯, 지역 문화와 지역 예술은 나름의 특색이 있다. 사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행위자나 대상 또한 지역적이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 이 부분만 다른 곳에서 채워나가면 된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출향 인사나 진보적인 성향의 문화 예술인들

중에서 개인의 능력차나 예술적 성취도 등에서 우월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오면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과 동화하려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의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태생적으로 배타적인 소도시에서 혼자 잘났다고 잘못하면 자칫 '모난 돌 정 맞는다'는 말처럼 되기 십상이다. 전주가 도청 소재지이고, 전북권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을 하수보듯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문화와 예술이 계급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일부는 이런 고정관념에 꼭 짜여 있는 듯하다.

최근 군산의 한 문화단체의 모임에서 “전주 등 외지의 능력 있는 문화예술가. 혹은 기획자들을 초빙해서 군산의 문화 예술계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 필요한 말이고, 할 만하니 했겠지만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출중한 능력을 가진 분들의 소신에 찬 주장이겠지만 군산사람의 입맛은 쓰다. 얼마나 군산의 정서와 문화예술계와 사람들을 알잖아 봤으면 그런 말씀을 서슴지 않았을까.

군산은 개복동 골목처럼 작다. 사람들의 행위도 쉽게 눈에 잡힌다. 어젯밤 누구네 집 부엌에서 누가 뭘 했는지 다음 날이면 안다. 뿌리 의식과 함께 보이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존재하는 게 여기이다. 일제 강점기, 등짐을 져서 먹고 살려고 했던 전국 팔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뤄진 도시가 군산이지만 그 뿌리는 군산을 둘러싼 옥구가 이어왔다.

배타적이지만 같은 아픔을 가진 '동류의식'이 이 지역의 정서이다. 오늘의 역사도 그렇다.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도시, 군산의 아픔을 역사관광이라는 이름을 붙여 팔려는 군산사람들의 안쓰러움이 전해지지 않는가.

군산의 근대문화자산에 대해 개혁과 진보를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진지한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다. 낫지 않은 상처는 애정과 관심과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아픈 군산을 향해 어느 누가 관심을 가졌고, 어느 누가 손을 내밀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야 한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군산사람들에게 선부른 판단으로 문전박대 당하지 말길 권한다. 한 발 한 발 진정으로 다가갈 때 군산이 열리고 사람들의 가슴이 열릴 것이다.



'성사당'(일명 공자묘로도 불렸음)



보국탑의 모습

한국우쿨렐레 교육협회 군산지부 김인선 지부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최근 국내에서 나날이 활동 무대의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는 우쿨렐레. 하와이의 전통 민속 악기인 우쿨렐레는 19세기 포르투갈 이민자들에 의해 하와이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지며, 20세기 초에는 미국 본토에 전해지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대중매체의 발전에 힘입어 전 세계에 소개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기타 1/4 정도의 작은 크기에 네 줄의 현이 있는 리듬 악기이다.



2015 군산성원교회 순회연주



2015 군산우쿨렐레앙상블 14회 1급 세미나

군산에도 언제부턴가 우쿨렐레 동호회들이 생겨나면서 관광지나 각종 행사장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대부분 어린이나 여성들로 구성된 동호회는 저마다의 레퍼토리와 포스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도 '한국우쿨렐레교육협회 군산지부'가 설립됨에 따라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선 악기였지만 크기가 작고 소리가 경쾌하며 비교적 배우기 쉽다는 장점 때문인지 짧은 기간에 보급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지부의 김인선 지부장은 군산대 성악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7년 전 지부설립과 함께 '우쿨렐레 앙상블'팀을 창단, 교육과 보급, 문화사업, 각종 공연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우쿨렐레에 대한 새바람을 일으키고 봉사활동에도 열심인 정통 음악가이다. 김 지부장에 따르면 2010년 첫 교육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도자 자격반 운영을 통해 다수의 우쿨렐레 전문 강사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취미반을 통해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한다. 우쿨렐레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호기심만 가진다면 기대 이상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매력 있는 악기로서 그래서인지 학교에서의 방과후 활동, 음악학원에서의 수업, 주부들의 취미그룹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습 요청이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관련 교육활동과 세미나 진행으로 초보자는 물론 이미 교습 중인 숙련자에게도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짐으로써 한층 더 실력의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2013. 찾아가는 문화공연 봄 나들이와 우쿨렐레 연주- 국제여객터미널



20131018_군산양상불 둘레길연주-한우교협 군산지부



김 지부장은 교육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우쿨렐레 전문 공연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1년부터 지부 산하 연주단체로 결성한 '우쿨렐레앙상블'을 통해 군산은 물론 전북 전역에 걸쳐 다양한 공연 기획과 연주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해 4월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6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관내 구불길축제를 비롯한 각종 옥내,외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큼하고 신선한 즐거움을 주고자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우쿨렐레 앙상블'은 8명의 정예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가 젊은 가정주부들로서 전주에서 다니는 회원도 있을 정도로 결속력이 대단하다. 이들은 대학에서 음악이나 유아교육을 전공한 경우가 많

고 1급 이상 최고 지도자 과정을 마스터하고 지도자로 활동 중일만큼 기량이 뛰어나다. 필자가 연습실을 방문했던 날도 회원들은 지부에서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한사무엘 이사의 지도에 따라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며 수업에 여념이 없었는데 여성 특유의 곱고 섬세한 음색과 우쿨렐레의 경쾌한 리듬이 빚어내는 멋진 음률은 그것만으로도 팀이름을 왜 '우쿨렐레앙상블'이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문화동 군중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지부사무실 겸 연습실은 비단 우쿨렐레 뿐만 아니고 음악 전반을 지도하는 장소로서 피아노, 기타, 드럼, 첼로, 오카리나 등 다양한 악기가 갖춰져 있다. 최근엔 우쿨렐레 뿐만 아니고 오카리나를 배우려는 사람도 많아 김 지부장이 직접 지도한

다. 김 지부장은 누구나 특히 나이가 들면서 무료하게 보내기 보다는 한 가지 악기라도 배워두면 훨씬 인간관계와 여가가 즐거워지고 삶이 풍요로워 질 것이라면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쉬운 악기부터 시작해 볼 것을 권유한다. '우쿨렐레앙상블'은 출범 첫해 창단공연(청소년수련관)을 시작으로 서해대서해홀, 예술의전당, 시민예술촌 등에서 매년 정기연주회를 가진바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보다 업그레이드 된 실력으로 하와이 문화소개도 결들인 멋진 공연을 준비 중에 있다. 김 지부장의 열정과 그의 지도를 받은 제자들이 각기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면서 우쿨렐레의 저변은 앞으로 더 폭넓게 확산될 터여서 시민 여가활동의 또 다른 문화로 정착될 것으로 여겨져 기대가 크다.



20131212-군산시청 연주



20141230 우쿨렐라 공연



2015청소년어울림마당(2)-군산우쿨렐레앙상블





- 01_ 2015 콩쿠르 포스터(에듀클래식)
- 앙상블부 차상 수상
- 02_ 2017. 제 6회 정기연주회 포스터 완성
- 03_ 군산우쿨렐레앙상블 제5회 연주회 포스터(인쇄)
- 04_ 포스터-군산우쿨렐레앙상블 제1회 정기연주회(1024)
- 05_ 포스터-군산우쿨렐레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640)
- 06_ 포스터-군산우쿨렐레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710)
- 07_ 포스터-군산우쿨렐레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710)



(맨 왼쪽) 지도 중인 한사무엘 강사



2014 향상음악회



주요연혁 및 공연

- 2011. 6 군산'우쿨렐레앙상블' 창단으로 공식 활동 시작
- 2012. 3 제5차 1급 지도자 세미나 수료(9명)
- 2012. 4 '우쿨렐레앙상블' 창단공연(청소년수련관)
- 2012. 8. 까르르콘서트 공동출연
- “ 10. '우쿨렐레앙상블' 단원총원(8명)
- “ 12. 월드비전 가족의 밤 특별출연
- 2013. 3. 제7차 1급 지도자 세미나 수료(9명)
- “ 3. 군산 '두레누리 축제' 거리음악회 출연
- “ 3. '우쿨렐레와 봄나들이' 국제여객터미널 공연
- “ 6. 제2회 정기연주회(서해대홀)
- “ 7. YMCA청소년문화의 집 '진로문화축제' 초청 연주
- “ 8. 진포문화예술원 '제16회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초청공연
- “ 9. 대전 극동방송 '행복칸타타' 익산본부 공개방송 녹화
- “ 10. 군산시 관광진흥과 시간여행축제 군산호수, 임피역
- “ 12. 나운종합복지관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 행복특강' 초청연주
- “ 12. 제3회 정기연주회(군대역사박물관)
- 2014. 5. 제1회 미니콘서트(하비섬커피숍)
- “ 12. 제4회 정기연주회(예술의전당 소공연장)
- 2015. 7. 청소년어울림마당 '글로벌페스티벌'(은파수변무대)
- “ 12. 에듀클래식 '우쿨렐레뮤직콩쿠르' 앙상블부 차상 수상
- 2016. 7. 진포문화예술원 '한여름밤의 문화공연' 특별출연(은파호수공원)
- “ 7. 제5회 정기연주회(군산시민예술촌)
- “ 9. 시간여행축제 구불길 버스킹(은파수변무대)
- “ 11. 제2회 '군산합창페스티벌' 특별출연(예술의전당)
- 2017. 4. 교회순회연주(서천교회/군산서문교회), '해피거리콘서트'버스킹(서천시내)
- “ 9. 제6회 정기연주회(군산시민예술촌)

한국우쿨렐레교육협회 군산지부
군산시 문화동888-5(군중 사거리 대로변)
김인선 지부장 H. 010-2809-9753

국립 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우리 군산은 가장 오래된 뽕집을 비롯한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근대역사를 잘 보존한 곳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간척 전에 김제·부안을 포함하여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로부터 서해 갯벌의 일부로서 '백합(조개류)'과 붉게 바닷가를 단풍으로 수놓는 칠면초를 비롯한 염생식물 경관으로 유명했던 걸 아시는지요? '백합'과 염생식물은 갯벌에 서식하면서 건강하고 다양한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수산자원입니다.

우리나라 갯벌, 특히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힐 정도로 면적이 크고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는 맛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표현이 꼭 맞지는 않겠으나 고려시대부터 갯벌을 간척하여 농토화 하는 것이 절실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식민지화 시절은 우리의 절실함과 다른 이유로 갯벌이 간척되었으나 광복 이후에도 농지 확장 등의 이유로 전체 갯벌 면적의 반 이상이 사라진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해안선이 복잡하여 각각의 독특하고 굴곡진 바닷가와 갯벌을 형성하던 것이 단순하게 직선화되고 획일화 되었습니다. 이런 해안선 변화는 갯벌 면적 감소 뿐 아니라 갯벌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갯벌 상부에 서식하여 개발 압력을 가장 먼저 받는 자생 염생식물 서식처가 제일 먼저 사라지면서 자생 염생식물이 점점 희소화 되고 있습니다. 칠면초를 비롯하여 바닷가에 있는 꽃이라는 '해당화', 열매 모양이 별처럼 아름다운 '나문재', 함초로 잘 알려진 '통통마디' 등이 갯벌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생 염생식물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보존하고 수산자원화 하기 전에 번식력이 왕성한 외래침입식물이 우리 갯벌을 점령하면서 갯벌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초토화 시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생 및 외래침입 염생식물 연구는 건강하고 다양한 갯벌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또한 우리 갯벌이 수산자원 양식처, 특히 패류(조개류), 로 활용되면서 수산 경제에 기여하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갯벌 경제가 탄생하고 유지되고 있으나 서해안은 ‘바지락’ 단일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식으로 단순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애로사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갯벌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가차원의 갯벌연구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센터가 은적사 근처에 자그맣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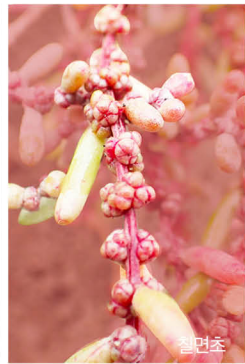
우리 갯벌연구센터는 갯벌의 보전과 복원 및 갯벌 수산 양식산업의 조화를 위하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염경보나 폭설경보 등에도 갯벌을 걸어서 이동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연구를 토대로 갯벌생태계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여장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도출로 건강한 갯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 패류 양식의 생산량 향상과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패류양식 품종 폐사저감 연구, 자연치패발생량 향상연구, 신품종 개발 등) 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갯벌 현황

우리나라 갯벌면적은 2,487.2km²(2013)임. 서해안 갯벌 면적이 2,084.5km² 로 전체 갯벌의 83.8% (약 84%)이며 세계 5대 갯벌임
※ 세계 5대 갯벌 :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북해 갯벌, 미국 동부해안 갯벌, 캐나다 동해 해안 갯벌, 아마존 하구 갯벌

갯벌은 수산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혹은 수산자원)의 서식지·산란지이며 오염정화와 자연재해 저감 능력이 탁월한 생태자원으로 갯벌면적 증감은 건강한 해양생태계의 유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국립수산물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전북 군산시 설립길 11
063-472-8600
www.nifs.go.kr / www.ecosea.go.kr



군산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제시하다!!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 민·관·학과 함께
거시적 관점의
도시재생 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으로 도시재생 시
전 지역 확대 추진



도시재생 선도사업 특집
도시재생선도지역
거리연극공연

군산시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개관,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의 복원, 영화촬영지 재건 등 도시재생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성공한 몇 안 되는 도시 중의 하나로 꼽히며 타 시군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에 지난 4년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군산의 월명동, 해신동 일원으로 한정되어 추진되어 왔던 도시재생사업이 올 연말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등 5개 핵심 사업을 시 전역으로 적용 추진하고 있어 그 내용과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자.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각각의 도시는 자신들이 가진 여건과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도시의 외곽으로 지속적인 팽창을 꾀하면서 발전을 이어간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도심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경제, 문화, 주거 등 인간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분야도 구도심을 떠나 신도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 현상은 신도심에는 활기와 신선함을 주지만 구도심에는 침체와 성장 동력의 저하를 남기게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구도심을 살려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숙제가 생기게 된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특집 도시재생 지속성장 위한 협약식



도시재생 선도사업 특집 도시재생대학 개강식



도시재생 선도사업 특집 도시재생대학

① 문화적 환경개선과 무형의 지역자산의 가치를 살리는 종합적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추진

시에서는 그동안 원도심 일원에 한정되어 추진되어 왔던 도시재생사업을 시 전역으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전략수립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2018년 1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지역 간 연계방안, 도시의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등 도시재생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도시재생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② 행정적 관리와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균형 도모를 위한 근대건축자산 DB구축/진흥구역지정/리모델링 추진

본 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월명동 일원에 산재한 근대건축자산에 대한 DB구축,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 계획 수립, 근대·일반건축물 리모델링 보조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산시는 월명동, 영화동 일원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안)'을 전북도에 제출했으며, 지난 6월 전북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로 통과되어 진흥구역 지정으로의 첫발을 떼 바 있다.

이를 통해 군산시는 군산이 간직한 근대문화의 건축자산에 대한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진흥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특색 있는 근대경관의 형성으로 지역 고유 분위기를 유지하여 전국적인 관광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월명우수저류조 쉼터

세부사업내용

사업명	근대건축자산 DB구축 및 콘텐츠개발 연구용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근대·일반건축물 리모델링 보조사업
개요	근대건축자산 DB구축 1식	관리계획 수립 A=466,000㎡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최대 5,000만원
사업기간	'16. 6. ~ '17. 5	'16. 3. ~ '17. 5	'16. 6 ~ '17. 12
사업비	135백만원	672백만원	2,090백만원
효과	- 건축자산 체계적 관리 - 훼손·멸실 방지 - 근대자산의 가치 회복	- 근대경관유지(지구단위계획) - 방화지구 특례 적용	리모델링 비용 지원

③ 시장관광의 새로운 시발점 영화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시에서는 액티브 로컬(공·폐가를 활용한 마을 재생전략) 프로그램 대상지로 원도심 내 대표적 재래시장인 영화시장을 선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영화시장 건물주 및 상인과의 간담회와 사업취지 사전설명회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사전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시장관광 콘텐츠에 적합한 신규점포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조사 및 교육·사업모델 리서치 등을 통해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과 임대활성화로 침체된 영화시장을 관광형 시장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액티브 로컬 이란

공·폐가를 활용한 마을재생 전략 실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제공받아 기획·설계·투자·운영·마케팅까지 통합 지원하는 도시재생 창업모델

④ 지역별 문화적, 역사적 자산과 주민생활이 연계된 도시 재생선도지역 경관협정 추진

본 사업은 도시재생선도지역내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해 건축물의 의장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건축물 및 공작물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 에 관한 사항, 녹지, 가로, 수변공간과 야간조명 등 관리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주도형 경관협정을 추진 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경관협정 추진 주민 주체와의 면담과 주민교육 실시 등을 거쳐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올 9월경 경관협정 인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시간여행마을의 지속적인 경관보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에서는 주민소통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역자원활용 상권 활성화 사업 ▲테마가로 조성사업 ▲조형물 설치사업 ▲구)국립검역소부지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사업의 5개 핵심사업과 더불어 주민복지향상 사업, 디자인 골목길 정비, 월명우수저류조 쉼터 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근대문화 유산과 영화촬영지 복원 등을 통해 관광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군산시의 도시재생 노력은 관광의 불모지에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관광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어 최근 서울시와 서울동북 5개 구청 간부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을 오는 등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군산시는 이러한 원도심 중심의 도시재생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이 국비 지원 사업 종료 이후에 어떠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갈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시 전역으로 확산·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의 전문가들은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군산시가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 선도 주자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군산시의 고민들이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군산시는 다시 한번 제2, 제3의 부흥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될 군산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특집.서울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방문



주민공모사업.아리울 매직클럽



2017 군산 시간여행 축제

새롭고 풍성한 준비로 '성공예감'

1930년대 '근대, 이야기 속으로' 라는 주제에 맞는 축제 콘텐츠 부각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축제홍보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근대, 이야기 속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타 시와 차별화 되는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올해의 축제에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축제의 주 무대인 월명동과 영화동 일대는 1930~40년대 일제 강점기 아픈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70~80년대 군산의 중심지로서 한때 번영기를 맞이하다가 도시 확장과 더불어 공동화 등을 겪으면서 다시 근대역사를 배경으로 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일명 시간여행마을(월명, 영화동 일원)로 불리는 이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군산시의 고민 속에서 지난 2013년 탄생한 '시간여행축제'는 기대와 우려 속에서도, 짧은 기간 만에 군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군산의 '시간여행'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막연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새로운 관광·축제 트렌드를 선도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근대역사를 배경으로 군산에서 보여주는 시간여행과 축제의 콘텐츠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간여행축제는 군산만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작된 축제로, 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번 축제를 준비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문화관광축제 평가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러한 고민에 대한 대안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간여행축제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군산이 의미 부여하는 축제에서 벗어나면서 군산만의 정체성을 담은 누구나가 찾아올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로 성장하

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번 시간여행 축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다.

제5회 군산 '시간여행축제'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 시간여행축제는 지난 해 축제평가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번 축제를 통해 개선하여 준비 중에 있다.

첫째, 우천에 대비한 비 가림 시설 설치와 부족 했던 각종 관광객 편의시설, 안내소 등을 확충하고 축제의 정체성에 부합한 근무자 복장이나 축제 행사장 경관이 개선된다.

둘째,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을 주무대로 한 행사공간에서 영화·월명동 일대 시간여행마을로 넘어오는 연계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구영6길과 구영2길, (구)시청사 앞 중앙로 일부를 축제기간 동안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여 편종된 공간구성 개선에 나선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안에서는 예전에 볼 수 없는 각종 체험과 전시 공연, 시민참여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셋째, 군산시간여행축제 대표 콘텐츠를 새롭게 정비하여 선보인다.



시간여행축제 플래시몹





먼저, 축제를 상징하는 퍼레이드 구성이 3.5만세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그 시대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보여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선보이고, 개막당일과 다음날까지 2회 운영으로 확대하여 시간여행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라는 이미지 각인에 나선다.

아울러,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백투더 1930's'미션 프로그램을 전면

에 내세워 야간까지 상설 운영된다. '독립자금을 모아라'라는 미션 수행을 통해 그 시절 독립활동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금액의 독립자금을 모으면 독립군 메달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넷째,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풍성한 내용으로 오래 머물다 가고 다시 찾아오는 축제의 변화를 도모한다.

△ 시간여행터널(주제관)을 비롯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천막극장 △김침지네 인력거 △ 1930's 가비(coffee)

이야기 등 주요 프로그램 등이 야간까지 운영된다.

특히, 군산에서 핫플레이스로 전국 관광객이 찾아오는 <초원사진관>에서는 19시부터 23시까지 '사계(四季)'미디어파사드쇼를 처음 선보일 예정에 있어 기대를 모은다.

다섯째, 처음으로 유료 콘텐츠를 도입하여 시간여행축제를 주관하는 축제위원회의 재정자립 기반은 조성하여 지속가능 한 축제운영 시스템을 갖추어 간다.



유료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여행화폐'로 환전을 해야 가능하도록 하여 그 시설 화폐를 체험하는 또 하나는 축제 콘셉트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여섯째, 시민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돋보인다.

지난 7월에 마감한 자원봉사자 모집에서는 모집인원의 두 배 가까운 190여명이 참여했고 순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플래시몹 서포터즈'가 전국을 누비며 이색적인 축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축제를 홍보를 위해 전략적인 SNS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군산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사전 모집이나 프로그램 홍보에 나서고 있어 군산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오픈 라디오-방송인 '군산 니우스'나 군산의 커피동호회원들이 준비 중인 '1930's가비(coffee)이야기' 시간여행 마을에서 개최되는 마을음악회인 '세광 모던연주회' 등이 성공적으로 준비 중에 있어 향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과 확산을 통한 민간참여가 활성화 되는 축제발전에 기대를 모은다.

일곱째, 시간여행축제의 정체성으로 담은 축제캐릭터가 처음 선을 보인다.

시간여행축제위원회 주관으로 개발된 캐릭터는 올해 평면 디자인 작업을 마쳤고 캐릭터에 어울리는 이름 공모와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네이밍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입체 디자인과 추가 응용동작 등을 개발하고 향후 시간여행축제 홍보 프로모션 진행, 관광상품 개발 등 캐릭터를 통한 축제 콘텐츠 발굴과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끝으로, 시는 시간여행축제를 방문하는 다양한 관광객의 니즈(needs)를 반영하여 근대역사 건물에 대한 전문가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유료 '이야기가 있는 집 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12명 이내를 한 조로 구성하여 평소 개방되지 않는 근대건축물을 투어 할 수 있는 해설프로그램으로 축제를 통해 고급·차별화하여 선보인다.

군산 '시간여행축제'를 바라보는 관점

'시간여행축제'의 네이밍에서 느껴지는 일반적 호기심의 범위는 시·공간을 초월한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이다.

그러나 군산만이 지닌 역사성을 배경으로 군산시민만이 아닌 모든 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차별성을 어떻게 갖추어 가느냐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는 관광만 하는 관점에서의 비판이 아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해가면서 부딪쳐 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갈 때 이러한 과제가 해결될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근대역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시민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과 시도만으로도 이미 올해 시간여행축제의 큰 성과로 돋보이며, 이런 노력의 결실로 이번 시간여행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감을 갖는다.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복지가 답이다!!”

‘사회복지의 날’ 맞아 ‘2017 희망복지 박람회’ 개최
올해 9회를 맞이하는 군산시 희망복지 박람회가 제18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9월 8일 오후 2시부터 9월 9일 17시까지 양일간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열린다. 군산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펼쳐지는 희망복지 박람회는 ‘복지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민관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여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뿐 아니라 박람회 슬로건과 홍보영상을 공모하는 등 시작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기획했으며 복지를 몸소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가족 뮤지컬인 ‘짜잔 경찰’을 공연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장애인, 여성·가족, 보건·의료, 자원봉사, 사회공헌, 일자리, 지역복지, 공공기관 등 50개 기관에서 총 55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이밖에도 복지골든벨, 런닝맨미션,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적기업의 생산물품 전시관, 읍면동 주민센터 발표대회, 통기타 경연대회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17 군산시 희망복지박람회를 빈틈없이 준비하여 다양한 복지제도·서비스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알찬 부스 운영 및 문화행사로 시민이 ‘복지가 답이다’를 체험하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군산 복지에 기여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여성독립운동가의 삶, 이름 그리고 기억...

지난 8월 31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관식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노력한 여성독립운동가의 삶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여성독립운동가- 삶, 이름, 기억’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개관하여 3개월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여성으로서 근대의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감내하며, 독립투사로 빛을 발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통해 한국여성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전시의 구성은 본 전시공간 ‘여성독립운동가- 삶, 이름, 기억’, 보조 전시공간 ‘돌아온 이름’, 체험공간 ‘태극기의 꿈’으로 조성되었다. 전시는 1부 ‘삶속의 독립운동’, 2부 ‘이름을 쓰다, 여성계몽운동’, 3부 ‘대한민국 기억, 여학

생의 독립운동’, 4부 ‘아내의 삶, 어머니의 삶...’, 독립운동가의 삶, 5부 ‘여성요원의 이름, 한민국임시정부’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근대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군산시가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특히 오는 8월 군산에서 진행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와 연계해서는 여성독립운동과 근대도시 군산의 면모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제17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행사가 우리고장 군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여성독립운동가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고자 기획됐다”며, “이번 전시가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30여 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매월 평균 8만여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시간여행마을 주변 위생업소 영업자 간담회 개최

군산시가 시의 대표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에서는 최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에 따라 시간여행마을 주변 위생업소 영업자(종업원)에 대하여 친절 교육 및 간담회를 지난 29일 월명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한 교육 및 간담회는 해마다 증가하는 관광객 수용 대비 위생업소의 손님맞이에 대한 불편·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자(종사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7 시간여행축제에 대비하여 관광객들에 대한 가격표 게시를 통한 바가지요금 근절,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등 영업주들의 준수사항 이행 교육과 ‘식중독 예방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오숙자 군산시 식품위생과장은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음식점은 해당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시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접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시로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과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군산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 철거

군산시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흉물스럽고 위험하기 방치되어 있는 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간판과 위험간판에 대해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점포의 폐업이나 이전 등을 이유로 간판을 철거해야 하나 그대로 방치되어 위험요소가 있는 장기간 방치된 노후 및 위험간판을 대상으로 시가 직접 나서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5월에 1차 사업으로 철거신청 30여건을 접수해 무연고 노후 위험간판을 철거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2차 사업은 홈페이지 공고 및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무연고 노후간판 등에 대한 철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위험간판이 산재해 있는 원도심 일원(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삼학동, 흥남동, 신평동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되며, 간판 철거는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화 된 간판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10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간판 철거가 도시미관의 개선은 물론 강풍 등 재난에 대비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무연고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 철거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는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란 및 해당 동에서 받아 작성해 건축경관과 광고물계나 해당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경관과(☎ 454-3612)로 문의하면 된다.

■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통해 최선의 맞춤형복지 제공한다

군산시, 지난 30일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위한 슈퍼비전 교육 실시

군산시는 지난 30일 각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송동 등 맞춤형복지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슈퍼비전’ 교육을 실시했다. ‘슈퍼비전’이란 통합사례관리 전 과정에 개입하는 실무자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서 복지 대상자에게 질적·양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되는 교육이다. 군산시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사업(구.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10여개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 분야의 ‘슈퍼비전’으로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호선 센터장과 봉계천 팀장이 각각 정신질환의 이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이 이루어졌다. 한편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 3월 슈퍼비전 제공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슈퍼바이저 위원을 구성했으며,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신 및 중독분야 전문가, 법률전문가, 상담분야 전문가 등 총 5명이 활동하고 있다.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 ‘시간여행축제’ 홍보 박차

국내외 여성리더 600여명과 행사관계자 대상으로 군산만의 매력 어필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지난 29일부터 군산새만금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한민족네트워크 행사 기간 중 시간여행차량을 이용한 ‘시간여행축제’ 이색 홍보마케팅을 펼쳐 행사에 참여한 국내·외 여성리더들과 행사 참여자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끌었다. 시에서는 행사기간 중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간 진행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를 비롯해 시간여행마을 내 근대 문화유산과 고군산군도 등 군산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제17회 세계한민족네트워크(KOWIN)행사는 ‘제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역할, KOWIN 미래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관광마케팅을 통해 군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시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와 대표관광지 홍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 참여를 계기로 군산시가 전 세계의 한민족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5회 ‘시간여행축제’는 여느 때보다 다채롭고 이색적인 체험과 프로그램들로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군산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고 있어 성공적인 축제 개최가 기대되고 있다.

■ 군산시 대야면 새마을협의회, 낡은 컨테이너 거주자 집수리 지원

군산시 대야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임기철)는 지난 1일과 2일 노후화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가구는 2013년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건축 하지 못하고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구해 생활하여 왔으며, 최근 바닥면의 합판이 곳곳이 부식되어 가리앉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대야면 새마을협의회와 이장단에서 힘을 합쳐 집수리를 도와주자는 뜻을 모았다. 집주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컨테이너 바닥을 재시공하고 전기판넬과 샤워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했으며, 주택 내외부 방역을 진행하여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집주인 이 씨는 “방바닥이 모두 썩어 위험하고 불편했는데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두양수 대야면장은 “지역 내 자생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각종 자원 연계를 통해 다양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자료 제공_군산시청 공보과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T.063)450-4208 F.063)452-8159

군산 지역 주민과 어부들이 선호했던 어류(2)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itel.net



종아니의 발길 닿는 대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38)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군산 앞바다 어장(고군산군도 근해, 금강)에서 잡히는 주요 어류는 조기, 복어, 상어, 민어, 홍어, 뱀어, 갈치, 게, 삼치, 대구, 청어, 새우, 송어, 병치, 오징어, 가오리 등 35종에 달하였다. 그중 일본인은 값비싼 민어, 준치, 뱀어 등을 먹었고, 조선인은 흔하고 값싼 갈치, 송어, 아귀 등을 먹었다.

준치는 진어(眞魚)로도 불리었다. 진어는 '참다운 물고기'라는 뜻으로 뱀어와 함께 금강에서 많이 잡혔다. 뱀어는 멸치처럼 통째로 먹었다. 준치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맛이 좋았으나 살에 가시가 많은 게 흠이었다. 오죽했으면 일본인들이 '가시만 없으면 조센징 먹기는 아까운 생선'이라며 한국인을 비하할 때 빗대어 말했을까. 광복 후에는 '조센징'이 '촌놈'으로 바뀌어 실소를 터뜨리게 한다.

1945~1961년까지 군산수협 공판장에서 위판한 주요 어종은 조기, 갯장어, 고등어, 서대, 병치, 농어, 도미, 갈치, 대구, 민어, 상어, 복어, 대하 등 22종이었다. 1964년 기록은 뱀어, 전어, 웅어 등이 추가되

어 27종으로 늘었다. 1990년 통계는 강물 오염으로 뱀어가 사라지고, 주꾸미가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 그중 군산 지역 주민들이 즐겨 먹었던 조기, 아귀, 홍어, 상어, 대하, 갈치, 꽃게, 우럭, 물매기, 망둥이, 박대, 황석어 등을 소개한다.

한때 제사상에 올랐던 '상어'

상어는 상어목에 속하는 어류의 총칭이다. 몸통이 원뿔꼴이고, 가시가 없어 연골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각이 발달하였다. 상어는 다른 어류와 달리 태생(胎生)을 하며 우리나라 해역에 4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기는 6월~11월이고 어청도, 고군산군도, 제주도 앞바다 등이 주요 어장이었다.

요즘은 상어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60~70년대까지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오를 정도로 군산 사람들이 즐겨 먹던 생선이었다. 생선을 물로 씻어내고 적당하게 자르는 과정을 '손본다', 혹은 '다룬다'고 한다. 그러나 상어는 '튀긴다'고 하였다. 칼로 비늘을 벗기는 일반 생선과 달리 뜨거운 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 내기 때문이었다. 상어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솥에

찌거나 부침개를 만들어 제사상에 올렸다. 겉모양은 홍측스럼지만, 살코기가 목화솜처럼 뽀얗고 부드러우며 고소했다. 선조들이 상어를 제사상에 올리게 된 연유는 첫째,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찌놓으면 '백의민족'이 즐겨 입는 옷과 살코기 색깔이 비슷하다는 것. 셋째, 기름기가 없고 담백하다는 것 등으로 알려진다.

흔히 상어를 얘기하면 거대한 '식인 백상아리'나 상어지느러미 요리(삭스핀)를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생선이었다. 다만, 다루기가 어렵고 복잡해서 대중 음식으로 자리를 못 잡지 않았나 싶다. 요즘도 상어가 제사용으로 인기가 좋은 경상도 부산, 마산, 대구, 울산 지역은 경매가가 항상 군산보다 높다고 한다.

조선 시대 진상품이었던 '대하'

대하(大蝦)는 보리새우과 갑각류로 개펄이 발달한 서해를 중심으로 남해 일부 해역에도 분포한다. 왕새우(대하)는 몸집이 큰 새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군산 재보선창 사람들은 수컷을 '봉선화'라 칭하였다. 5~6월에 산란해서

완전히 성숙하면 암컷(25~30cm)이 수컷(15cm 안팎)보다 놀라울 정도로 크다. 암컷은 하얀색이 되고, 수컷은 붉은빛을 띤다.

요즘엔 중남미산 흰다리새우, 예과도르산 홍다리새우, 양식 보리새우 등이 대하로 팔리고 있는데, 흰다리새우는 대하와 흡사해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머리 위에 달린 뿔을 비교해보면 현격히 차이가 난다. 대하는 새끼도 수염이 자기 몸통보다 훨씬 길고, 뿔도 뾰족하다. 반면 흰다리새우는 수염이 짧고 뿔 길어도 뭉툭해서 쉽게 구별된다.

대하는 살이 통통하고 맛이 좋았다. 그래서 값이 비싸도 찾는 사람이 많았다. 새만금방조제 착공(1991년) 전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오식도, 비응도 등 군산 앞바다 섬 주민들이 대하잡이에 나섰다. 수온이 섭씨 10℃ 이상으로 올라가는 음력 3~4월에는 대하 산란기로 외역에서 회유하던 대하가 연안으로 모여들면서 어장이 조성됐다.

군산 미식가들은 대하탕은 국물이 시원해서 속풀이 음식으로, 대하찜은 술안주로 즐겨 먹었다. 대하탕에 들어가는 대하는 2~3마리 정도였으나 굵기가 아기 팔뚝만 해서 보기만

해도 포만감이 느껴졌다. 대하 애호가들은 대하잡이 현장으로 달려가 살아서 팔딱거리는 대하를 소금구이나 껍질을 손으로 벗겨 내고 초장에 찍어 소주를 곁들여 먹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봄에 잡히는 대하를 가마솥에 찌서 살짝 건조한 다음 짬으로 굴비처럼 엮어 통풍이 잘되는 대청이나 공간에 걸어놓았다가 입이 심심할 때 꺼내 먹었는데, 겨울철 최고의 군것질거리였다.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도 군산(옥구)의 진상품으로 소개한 것을 보면 말리거나 훈제한 대하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민 밥상에 빠지지 않았던 '갈치'

갈치는 농어목 갈치과로 분류되며 열대, 온대 해역에 분포한다. 몸길이가 1.5m에 달하고 먹이는 주로 갑각류이며 입은 매우 크고, 위턱의 뒤끝은 눈 뒤 가장자리에 미친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돌출되어 있으며, 양턱 앞에는 갈고리 모양의 강한 이빨이 나 있다. 어기는 5월~6월, 8월~10월이며 고군산군도, 연도, 어청도 근해가 주요 어장이었다.

갈치는 칼처럼 생겼다고 해서 도어(刀魚)로도 불린다. 제주의 은갈치와

목포의 먹갈치가 유명한데, 낚시로 잡으면 은갈치, 그물로 잡으면 먹갈치로 잡히는 방식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은갈치 빛갈은 은색이 선명하고, 먹갈치는 은색 바탕에 회갈색을 띤다. 낚시로 잡은 은갈치가 맛도 좋고 값도 비싼 것으로 알려진다.

생김새는 신경질적이고 사납게 생겼지만. 맛은 고소하기가 그만인 갈치는 흔한 편이어서 서민들 밥상에 단골로 올랐다. 그러나 어족자원이 고갈된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소금구이, 찜, 찌개 등 조리 방법도 다양하다. 그중 찌개는 가정에서 밥반찬으로, 소금구이나 감자와 무를 나박나박 썰어 넣은 얼큰한 갈치찜은 애주가들이 술안주로 즐겨 먹었다.

뱃사람들 사이에 '10월 갈치는 돼지삼겹살보다 낫고, 은빛 비늘은 황소값보다 비싸다!'는 속담이 회자할 정도로 갈치는 가을 생선으로 알려졌다. 천고마비 계절에 먹어야 제맛을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다. 군산 재보선창 주변 '젓탱크(젓당꼬)'에서 갈치 내장으로 담긴 '갈치속젓' 또한 별미로 여름 반찬으로 인기가 좋았다. (계속)

출처: <군산항에 얹힌 이야기들>
(2017 군산문화원 발행)

소중한 치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마법, 칫솔질!

지난 몇 달 동안 칫솔질에 대해 칼럼을 썼습니다. 물론 매거진 군산 창간호부터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도 설명 드리고, 저렇게도 말씀드리고 했지요. 그동안 맥군에 실린 칼럼의 3분의 1 이상이 칫솔질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사람은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윗니가 14개, 아랫니가 14개, 추가로 사랑니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지요. 나란히 서있는 전봇대 중에 하나를 쓰러트리면 그와 인접한 전봇대들은 위태로워집니다. 치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나란히 서있는 치아 중에 하나가 빠지거나, 심하게 흔들리거나 하면 그 옆에 있는 치아 및 그에 맞물리는 치아까지 불안정한 상황

에 빠지게 됩니다. 일생을 놓고 보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우수수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전봇대가 삐틀 삐틀 세워진 것과 같은 치열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반듯하고 튼튼하게 전봇대가 배열된 것과 같은 치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봇대 자체가 불량 제작되어 쉽게 부스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타고난 성질 즉, 유전적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자신이 타고난 치아를 최대한 건강하게 관리,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이 올바른 치과 치료와, 정확

한 칫솔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아, 잇몸 관리 방법이 칫솔질입니다. 치과에서 하는 정기적인 스케일링보다 집에서 하는 칫솔질이 더욱 효과가 높은 치아 건강 관리법입니다.



사실 칫솔질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TV, 신문, 잡지 등등 수도 없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치과적으로 중요한 주제인 것이지요. 정보에 자주 접하다보니 이제 칼럼을 정독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하면서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칫솔질에 대해, 치과의사로서 20년 넘게 경험하고 느낀 것을 되도록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매거진 군산의 애독자 중에 서너 분 만이라도 제 글을 읽고 칫솔질을 열심히 그리고, 정확히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겠지요. 칫솔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❶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 말고 치과 의사의 기준에 맞는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❷ 칫솔질 방법에 구애받지 마시고 3분 이상 쉬지 말고 열심히 칫솔질 하세요.

❸ 주무시기 직전에 반드시 칫솔질 하세요. 낮에 3번 하는 칫솔질보다 자기 전에 하는 1번의 칫솔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3 가지는 꼭 기억해주세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내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 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갯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 오후 8:00 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종교인과세를 유예하지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성난 여론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발적 과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일부 종교계가 '역풍'을 맞는 등 이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처음 공론화된 이후 종교계의 반발에 막혀 공전만 거듭하다가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5년 말 소득세법 에 '종교소득' 항목을 새로 만들어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종교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과세에 필요한 체계를 정비한다는 취지로 2년의 과세유예 기간을 설정했었는데 시행이 4개월여 남은 시점에 '과세준비가 덜됐다'는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행시기를 2년 더 늦춰 2020년부터 과세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을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하는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대

상 및 비과세 대상 소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종교인이 받는 소득은 각 교단 특색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의 성격을 가진 사례비를 포함해 선교활동 명목의 설교비, 차량 유지비, 식비, 교육비, 회의참석비 등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항목이 워낙 다양해서 이중 어떤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가려내기가 불가능해 납세예측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과세대상 소득 구분 논란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지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밀주의'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정치인들이 이러한 다양한 지급구조에 대해서 전혀 알수가 없었고, 유예기간동안 정부가 종교인 과세제도를 정비할때 각 교단에서 소득지급구조등을 미리 공개하는등 시행령준비에 협조했으면 됐을 일을 이제 와서 마치 구조적인 문제인양 과세 유예의 빌미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은 종교인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사택제공을 비롯

해 자녀학자금, 식비, 교통비, 출산비용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고, 종교계의 자진납부 의사를 반영해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1년에 한 차례 자진납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금구조보다 훨씬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령액이 연간 4천만원이하인 경우는 필요경비공제율이 80%이므로 납부세액은 거의 없고, 그 이상도 실제 납부할 세액은 많지 않습니다.

매년 1억이상의 사례비를 받는 고소득 종교인이거나, 교회나 사찰운영에 전횡을 일삼아 내부자료가 공개되는것을 두려워하는 일부 대형교회나 사찰의 경우가 아니라면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세금납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Q. 안녕하세요? 미장동에 사는 김 준환입니다. 최근 제가 최근 미장동에 토지를 매매하고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갑작스럽게 해당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다고 시청으로부터 연락이 온 상태인데 여전히 남은 잔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매우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A

오늘은 문의한 관련 부동산매매 계약 사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준환씨는 강 석구씨가 소유하고 있던 미장동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매대금 전부가 아닌 그 중의 일부, 계약금과 중도금만 우선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생각지도 못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매매계약의 내용인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로 수용되는 결정이 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김준환씨는 중도금 외 계약금 잔금을 본래 지급기일(잔금일)에 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이 되어버린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됨으로써 매도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이전 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이 부분의 비

율대로 부동산매매계약 대금을 감액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잔존하고 있는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때도 선의의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전부를 해제 할 수 있으며, 선의의 매수인은 부동산과 관련해 감액청구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석구씨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김 준환씨는 강 석구씨로부터 나머지 금액과 관련해 지급요구 하는 사항을 거절할 수 있으며, 도로 부지로 수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이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한다 주장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영원한 거짓은 없다!

특별시민 (THE MAYOR) 영화의 대사 중 ~



‘특별시민’이라는 영화가 지난 5월에 개봉 상영되었다.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변종구(최민식)라는 서울시장의 이야기이다. 국회의원 3선과 서울시장 재선 그리고 3선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음모와 술수 그리고 음해선전과 표를 얻기 위한 온갖 몸부림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는 영화다.

최근 뉴스 중 한 꼭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이 아닌가 한다. 마치 영화의 이야기처럼, 그 당시 유력한 여권 후보를 지지하고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운용하고 여러 팀으로 나누고 답 글의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을 책정하여 알바비를 챙겨주는 등 국가권력의 일부가 불공정,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세훈 국정원장은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법정구속 그리고 보석 다시 고등법원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이 선고, 구속되었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특별시민의 대사처럼 아직도 시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일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며 시민들을 오직 살아있는 표로 보는 후보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제는 그 낡은 틀의 선거운동 방식이 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입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을 남기고 대밭으로 간 이발사의 외침처럼 진실은 언젠가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은 늘 진실을 진실로 알고 싶어 한다. 일순간 눈과 귀와 입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거짓은 없다.

도도한 강물의 흐름을 막아 만든 4대강 사업이

생태와 환경에 얼마나 좋지 않은 모습인지

몇 해 지나지 않았음에도 훨씬 드러나듯

변종구(최민식) : 이게 뭔지 아세요?

박 경(심은경) : 당연히 개죠!

변종구(최민식) : 아니요 아거 늑대 새끼예요.

변종구(최민식) : 잘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박 경(심은경) : 개 ... 아니 늑대새끼예요.

변종구(최민식) : 이게 무슨 늑대 새끼예요. 개 새끼지. 내가 늑대 새끼라면 이 높은 늑대 새끼인거예요. 당신의 역할은 내가 이놈을 늑대 새끼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녀석은 진짜로 뭐죠?

박 경(심은경) : 개 .. 새끼요.

변종구(최민식) :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놈을 늑대 새끼로 알려라도, 당신만은 진실을 말 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당신의 일입니다.

글 |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 여성독립운동가- 삶, 이름, 기억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노력한 여성독립운동가의 삶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여성독립운동가- 삶, 이름, 기억'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 개관하여 3개월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근대기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여성으로서 시대를 감내하며, 독립투사로 빛을 발했던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통해 한국여성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전시의 구성은 본 전시공간 '여성독립운동가- 삶, 이름, 기억', 보조 전시공간 '돌아온 이름', 체험공간 '태극기의 꿈'으로 조성되었다.

전시는 1부 '삶속의 독립운동', 2부 '이름을 쓰다, 여성계몽운동', 3부 '대한민국 기억, 여학생의 독립운동', 4부 '아내의 삶, 어머니의 삶... 독립운동가의 삶', 5부 '여성요원의 이름,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근대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군산시가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특히 오는 8월 군산에서 진행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와 연계해서는 여성독립운동과 근대도시 군산의 면모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제17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행사가 우리고장 군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여성독립운동가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고자 기획됐다"며, "이번 전시가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30여 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매월 평균 8만여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작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5대박물관으로 선정되고, 박물관 인근의 7개 건물이 테마단지화되면서

전국적인 가족단위 체험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주말에는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길게 늘어진 관람객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거리를 걷다가 만나는 뜻밖의 전시회 '예술가, 개복과 통하다' 군산시민예술촌 3번째 야외갤러리(9월 1일~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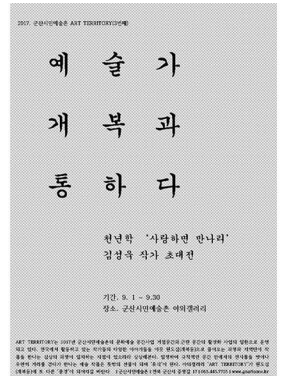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이후 1980년대까지는 군산시의 유일한 극장가로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예술인들이 모여들었던 문화의 중심지, 개복동(開福洞).

2017년, 현재 극장은 모두 폐업상태이다. 2012년도부터 군산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인의 거리 사업 추진과 더불어 옛 우일극장이었던 곳을 재건축, 지역민들이 문화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예술인들이 제약 없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군산시민예술촌'을 탄생시켰다. 개복동을 포함한 원도심들이 겪고 있는 갈등, 더불어 지역 간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행정과 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2017년 군산시민예술촌의 사업 방향 중 하나로 '걷고 싶은 거리'를 컨셉으로 '아트테리토리(야외갤러리)'를 추진하고 있다. 일정하며 규칙적인 공간 안에서의 전시들을 벗어나 우연히 거리를 걷다가 만나는 예술작품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주고자

함인 군산시민예술촌이 야외갤러리를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다. 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원도심(개복동)의 모습을 알리는 공감 형성을 시작으로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민예술촌 아트테리토리(야외갤러리) '예술가 개복과 통하다' 전시회는 3번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9월 한달 간 전시될 작품은 한국적 정서를 집(한옥)과 학, 달을 주 소재로 작품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김성욱 작가(45. 한국화가)의 총5점(100호) 전시된다. 한국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욱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하여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주기를 바라는 소박한 참여의지를 밝혔다.



2017년 군산시민예술촌 상설공연단의 마지막 공연 '내 생애 최고의 특별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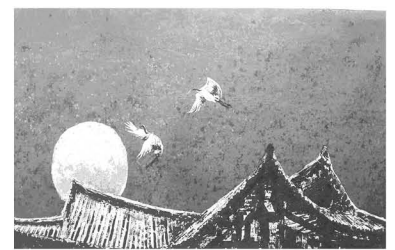
청년들의 열정과 꿈의 무대를 지역에서 펼칠 수 있으며 더불어 공연문화가 희망(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군산시민예술촌 상설공연단의 Good-bye 무대가 오는 9월 10일(일) 오후4시부터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에서 무료로 펼쳐진다.

퓨전 국악단, 인디밴드, 힙합무용, 방송댄스 등 다양한 공연 장르의 10~30대 청년들로 구성된 상설공연단은 주로 군산의 원도심과 시장을 순회공연하며 군산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어왔다.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설공

연단은 '내 생애 최고의 특별한 공연'이라는 주제로 공연자로서 무대를 대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관객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면 공연단, 관람객이 하나 될 수 있는 공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민예술촌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팀을 모집, 연대의식을 공유하며 과정(연습)의 중요성과 결과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성숙한 공연문화를 열어가고자 매년 상설공연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공연단으로는 너울퓨전국악단, 두동사운드, 스펅키크루, 탬테이션크루, 트리플제이, 달하팀 등이 활동해오고 있다.



군산시민예술촌
GUNSAN CITIZEN ART VILLAGE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 www.gsartzone.kr

군산 청소년 자치기구들, 방학동안 달그락거린다.

청소년 Youth 마켓

청소년들이 직접 경제활동에 나섰다. 청소년 경제활동 자치기구들에 소속된 청소년들은 올 초 상반기부터 진로&경제 아카데미 이수 후 기획 상품선정 및 시장 조사, 지역상인과의 멘토링 등에 참여하고 8월9일(수)과 8월10일(목) 청소년 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8월12일(토)과 8월13일(일)은 군산 영화동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책방”에서 마켓을 운영하였다. 이 활동의 수익금 20%는 지역사회 지원금으로 쓰이며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재능기부 활동 또는 지역 내 어르신께 리마인드 웨딩을 할 계획이다. Youth 마켓을 운영하는 청소년들은 이후에도 드라이플라워, 제과·제빵, 네일아트, 미용 컨텐츠, 꼬치, 음료, 책갈피, 의류, 종고서적, 악세서리 등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진로탐색의 기회, 연대의식 향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세월호 기억식

올해 4월 세월호 3주기를 추모하며 달그락 청소년 자치기구 임원들 30여명이 논의하여 만든 세월호 기억선언문을 8월5일(토) 세월호 앞에서 발표하였다.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의 만나 청소년 60여명이 편지를 전달하고 세월호 기억 선언문을 낭독 후 전달해 드렸다. 목포 신항에 다녀온 후 청소년들은 유가족 분들과의 만남 시 오히려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울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유가족 분들 앞에서 울어 죄송하였다고 하였다. 세월호 유가족 분들은 자녀와 평소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며 청소년들에게 부모님과 소통을 해주길 전하였다.



청소년 작가단 출판기념회

“NEVER ENDING STORY”. 청소년 잡지 제1호의 제목이다. 청소년 작가단 눈맞춤이 올해 상반기부터 군산 내 청소년들을 직접 섭외, 인터뷰, 글쓰기, 교정을 거쳐 출판된 청소년 잡지는 목표가 뚜렷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삶을 정리하였다. 출판기념회는 작가단 소개, 잡지제작 에피소드, 잡지 주인공의 소감발표, 축하사, 작가단 소감발표 및 사인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작가단 청소년들은 힘들었지만 끝까지 하여 보람되었다는 소감을 발표하였다. 차기 잡지의 주제는 청소년이 상상하는 마을, 살고 싶은 마을이며 소설, 동화, 에세이 등의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구르미 그린 달빛 차회



연경당

‘구르미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효명 세자는 (1809~1830) 순조의 왕세자로 4년간 대리 청정을 하다 22세에 세상을 떠나 양자인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고 문조익황제로 추존했다.

예악(禮樂)을 근본으로 한 정치가이고 역사의 대학자이며 400여 편의 시와 문집을 낸 문장가이다. 조선시대 궁중의 잔치 연향에서 행해진 궁중무용인 정재를 창작하고 야연이라는 연향을 만들어 악장을 쓰고 진연을 연출 감독하였다.

순조임금은 세도정치의 폐단이 극에 달해 왕권이 약화되고 민심은 도탄에 빠져 어지러운 정국에 19세가 된 효명세자에게 전권을 주며 대리청정을 하도록 한다. 효명세자는 정치의 근본을 사회정의의 구현하는 예(禮)와 선한 심성을 깨워주는 악(樂)에 두었다. 춤과 예술에 대한 사랑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이 시작되면서 왕실의 행사를 통해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였다. 4년의 기간 동안 일곱 번의 능행과 연경당에서 세 차례의 연향이 있었다. 1828년 진작례를 기점으로 조선시대 53개의 정재 중 26개의 정재를 창작하고 정리한다. 악단을 조직하고 무동과 지방의 여기(女妓)들을 불러 올려 규모를 키우고 화려한 정재공연을 펴 예술적 수준을 끌어 올렸다. 고구려와 신라시대의 춤을 살려내고 당악기로 편성된 당악 반주를 향악기중심의 향악정재로 자

유희고 자주적인 춤의 양식을 만들고 민간의 이야기와 전설을 주제삼아 조선의 고유한 예술성을 갖춘다. 정재는 의궤와 홀기로 기록되고 그의 작품집 『예제』에 모두 수록되어 공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짧은 시기 그가 만든 조선시대 공연 문화 예술의 한 흐름은 대한제국 까지 이어져 간다. 춘앵무와 무산향은 전승되어 지금도 무대에 오르고 있다.

차와 시를 좋아하고 즐겨 창덕궁의 후원 여러 곳에 독서당과 다옥을 지었는데 다옥과 다실은 화려해서는 아니 되며 희노애락우(憂)매(梅)를 모두 안아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의 예인 효명세자가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아티스트에 엔터테이너 아이돌일 것이다.

19세에 나라의 운명을 지고 늘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시해의 위협에 있으면서도 예술이 사람을 치유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며 예악의 정치를 했다. 정적들에게는 예로서 왕의 권위와 질서를 세

우고 백성들과는 함께 잔치를 벌이고 노래와 춤으로 위로하며 문화를 꽃피웠다. 차를 좋아하고 다구들을 벗 삼아 다담을 나누며 자연과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 효명세자에게 마음으로 차잔을 건네 ‘구르미 그린 달빛 차회’를 즐겨본다.

효명세자가 일금현 서당다실에서 홀로 차를 달이다가 지은 시 소경(小景)을 읽으며...

작은 누각의 발에 달빛이 비치고
청아한 꿈속에 등 하나 걸려있네
학이 잠든 숲속은 고요하고
깊은 샘물이 대나무 통 속을 흘러내리네.
농차(濃茶)의 모습은 게 눈같이 보이고
금(琴)소리는 한서린 매미우는 소리 같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누가 그릴 수 있겠는가
나중에 배를 타고 이경치를 찾아보세

이미숙
차림문화원 대표 복식 수석큐레이터
010-5284-7503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군산예술의전당	어린이뮤지컬 『카봇3』 제27회 군산 전국학생 전통예술 경연대회 군산예술의전당 프로젝트 스물몬스터 『테마일즈』 김건모 콘서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어린이뮤지컬 『카봇3』 군산예술의전당 양도연 색소폰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새만금장애인 예술제 군산예술의전당	시립합창단 제91회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전주시립교향악단 제222회 정기연주회 목요국악예술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청소년국악관 현악단 제11회 정기 연주회 어린이뮤지컬 『파랑새특공대』 군산예술의전당 가리내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Tous String Quartet 제2회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미사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전라북도어린이 교향악단 제21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3회 군산 합창 페스티벌 군산예술의전당 노스트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주곡 의 밤 제6회 W 색소폰 정기연주회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프라노 심민정 독창회 군산예술의전당 전북대학교 음악과 제21회 교수음악회 독거 어르신 후원을 위한 초가을 밤의 누룽지 음악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두 가지 색깔 & 한 가지 마음 The Art of Accompanying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비르투오조 제43회 정기연주회 목요국악예술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HerZ Wind Orchestra 제3회 정 기연주회 한울 피아노 트리오 제5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뮤직포유가음악회 PM 7:00 은파물빛다리광장 기획공연 가을을 여는 국악콘서트 락 군산예술의전당 2017 JB카드 콘서 트-김태우, 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버블매직쇼 군산예술의전당 전라북도 어린이국악 관현악단 제14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뮤직페스티벌 어린이뮤지컬 『피터팬』 군산예술의전당	2017 전주세계 소리축제 개막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클래식 폭소콘서트 암모암모 군산예술의전당 2017 전주세계 소리축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7 전주세계 소리축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극 등당애 군산예술의전당 2017 전주세계 소리축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농악 판놀음 군산예술의전당 2017 전주세계 소리축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극 동인무대 군산예술의전당	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군산예술의전당 비르투오조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26회 정기연주회 연극 사람세상 군산예술의전당 2017 문화가 있는 날 작은음악회 '나달' - 아중여성합창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교대 관현악단 제17회 정기연주회 목요국악예술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은파청소년오케 스트라 제6회 정기 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이윤정 김우중 듀오 리사이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금강은빛합창 정기 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박상돈, 이동신, 광동 현, 고은성 <오버더 크로스오버> 콘서트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

군산예술의전당

꿈으로 부터 세계로
2017-09-01 ~ 2017-09-06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 문인화 대전
2017-09-08 ~ 2017-09-14
동행
2017-09-15 ~ 2017-09-20
시화전, 초청강연, 시낭송회
2017-09-21 ~ 2017-09-25

지금(只今)
2017-09-01 ~ 2017-09-07
연합전시회
2017-09-15 ~ 2017-09-20
제32회 군산전국사진공모전 및 한-중사진교류전시회
2017-09-21 ~ 2017-10-09
군산미협과 함께하는 소통전
2017-09-26 ~ 2017-09-3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09.07(목)~09.24(일)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09.27(수)~10.02(월) 제12회 메글모임전
09.27(수)~10.02(월) 제20회 전라북도 서예전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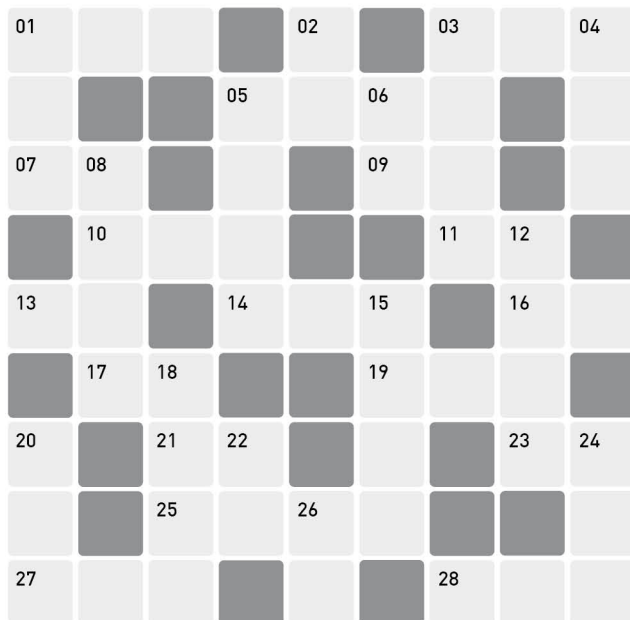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개정동 413 (063) 452-4075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신흥동 58-10 (063) 445-9331	삼성애육원 군산시 신창동 7 (063) 445-5947
일맥원 군산시 문화동 824-7 (063) 462-2385	신광모자원 군산시 나운동 1242-9 (063) 462-7749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나운동 845-9 (063) 461-8572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원면 증석리 58-8 (063) 466-6088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88-1 (063) 464-9944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 (063) 466-7981

날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즐거워 크로스워드 퍼즐 74



<제73호 퍼즐 정답>

전	영	장	감	놀	화
교	목	삼	찌	동	장
조	간	이	앙	기	반
통	도	사	실	무	자
롱				수	
사	이	비	변	리	사
공	자	정	물	화	정
징	후	규	무	동	경
이	우	직	쌍	봉	화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911-1856 **E-mail.** jay0810@hanmail.net

정답이었으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 열쇠

- 미국의 45대 대통령. 백인 우월주의의 배타적 반이민정책, 러시아스캔들, 감세와 복지예산 축소, FTA재협상 등 논란이 많은 국정운영으로 탄핵 설을 자초하고 있기도 하다.
- 우선 먹고 보자는 향락주의적인 생각. 여럿이 모여 마구 먹고 즐기는 자리.
- 기와집 용마루의 양쪽으로 끼우는 수키왓장.
- 걸질. 장기(臟器)에서 속과 바깥의 것이 구조적으로 구별될 때의 바깥층.
- 연설하는 사람.
- 몸의 길이는 1.7~2.3cm 정도로서 둥글넓적하며, 등은 광택이 나는 금속색, 아랫면은 흑록색인 곤충. 성충은 6~8월에 발생하여 활엽수의 잎을 먹고, 애벌레인 근절충은 땅속에서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음.
-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
- 관가에 속하여 있던 노비.
-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 부득불.
- 끼니와 끼니 사이에 먹는 음식.
- 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남.
- 국립공원의 하나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및 영월군에 걸쳐 있는 해발 1,282m의 산.
- 객지에서 겪는 고생.
- 전생의 악한 짓에 대한 죄값. 선악의 행위로 말미암은 과보.
- 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음.
- 지난 2006년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도(道)로써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 젓을 떼는 시기.

▼ 세로 열쇠

- 표창, 기념, 상 따위로 주는 컵.
- 눈에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좁은 통로.
- 생태계에서 먹이를 중심으로 이어진 생물 간의 관계.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자. 제우스가 인간을 벌하기 위하여 헤파이스토스를 시켜 흙으로 빚어 만들고 온갖 불행을 담은 상자를 주어 인간 세상에 전했다 함.
- 숨을 얇게 두어 만든 이불.
- 범위나 내용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어렵듯함.
- 몹시 세차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
- 그 나라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산업. 주로 중요 생산재를 생산하는 중화학 공업을 가리킴.
- 모르는 것을 아랫사람에게 묻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함.
-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선후·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을 이르는 말.
- 산악인들이 매년 연초에 지내는 산신제.
- 옛 시대.
- 김치, 깍두기 같은 반찬을 담은 작은 사발.
- 두 눈썹의 사이.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www.maggun.com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매거진군산

광고를 고민하신다면!

발행부수 5,000부,

군산 전 지역 무료배포, 1,500부 발송!

높은 회독률과

지역 독점 기사의 집중도까지 따져보신다면
매거진군산의 광고효과는 탁월합니다.

이제

광고마케팅은 매거진군산에 맡기시고
당신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매거진군산

a. 54027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2층

t. 063-445-1856 f. 063-911-1856 wh. icm23 (icm23)

G U N S A N C U L T U R E N I G H T

여름밤

군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 !
www.culture-nightgunsan.kr

일시

2017. 8. 12 (토) ~ 8. 13 (일)

18 : 00 ~ 23 : 00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

군산 야행

8夜



- | | | | | | | | |
|-----------------|-----------------|-----------------|-----------------|-----------------|-----------------|-----------------|------------------|
| 야경
夜景 | 야로
夜路 | 야사
夜史 | 야화
夜畵 | 야숙
夜宿 | 야식
夜食 | 야설
夜設 | 야시
夜市 |
|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 밤에 걷는
거리 | 밤에 듣는
역사이야기 | 밤에 보는
그림 |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 밤에 즐기는
음식 | 밤에 감상하는
공연 |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장터 |